

야곱의 12아들의 유언

다음 12권은 기원전 BC 107년에서 137년 사이에 쓰여진 야곱의 12아들의 유언입니다.

거의 솔직한 -너무 솔직한- 본문 구절 너머를 보면 그리스도보다 100년 전에 존재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종 시에 그는 주변의 모든 자녀와 손자, 증손자를 부르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위해 주저 없이 자신의 실수와 치부를 드러냅니다.

역자의 생각(이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할 이유)

- 야곱의 12아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조언해 주고 있다.
- 12아들 모두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1,2권에 나오는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 요셉이 애굽에 팔린 사건과 애굽 여자가 그를 어떻게 유혹했는 지를 깊이 있게 조망함으로써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인지 알 수 있다.
-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있다.
- 레위는 하늘의 일을 유다는 땅의 일을 맡았으며, 예수님은 레위와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 예수님 이전에 쓰여진 책인데, 너무나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열두 족장의 유언은 왜 알려지지 않고 편찬되지 않았는가?

이 책의 영문판은 *The Forgotten Books of Eden* 내에 있었던 책으로 이름 그대로 잊혀진 책인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야곱의 12아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는지 알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12지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회개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읽으면서 당신의 영혼을 위한 회개의 눈물과 기도가 일어나길 바란다.

The Testament of Reuben

르우벤의 유언

야곱과 레아의 맏아들.

1장

야곱과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은 음행에 대해 조언하고 사람들이 가장 오류에 빠지기 쉬운 방법을 지적합니다.

르우벤의 유언의 사본, 곧 그가 백이십오 년에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2 그의 형제 요셉이 죽은 지 이 년 후에 르우벤이 병들어 그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이 그를 만나러 모여 들었습니다.

3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자녀들아, 보라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내 조상들의 길을 가리라.

4 거기서 유다와 갓과 그의 형제 아셀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일으켜 내 마음에 숨겼던 일을 내 형제와 자손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5 그가 일어나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들으라.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 아버지 르우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6 그리고 보라, 내가 오늘 하늘의 하나님을 증인으로 너희에게 부르리니, 너희가 음행과 청년 시절의 죄 가운데 행하지 말라. 나는 거기서 쏟아졌고, 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노라.

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이 일곱 달 동안 내 사타구니에 심한 재앙으로 나를 치셨고 내 아버지 야곱이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님께서 나를 멸하셨으리라.

8 내가 삼십 세에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일곱 달 동안 나는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노라.

9 그 후에 내가 주 앞에서 칠 년 동안 내 영혼의 정한 목적으로 회개하였노라.

10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고기도 입에 넣지 아니하였고 맛있는 것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 죄가 이스라엘에 이전에 없었던 것과 같이 컸기 때문에 슬퍼하였노라.

11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내가 회개할 때 일곱 미혹의 영에 관하여 본 것들을 들어라.

12 그러므로 일곱 영이 사람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으니 그들은 청년의 일을 주관하노라.

13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실 때 그에게 다른 일곱 영이 주어졌으니, 이는 그들을 통하여 사람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14 첫째는 생명의 영이니,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체질이 창조되는 것이니라.

15 두 번째는 시각으로 욕망을 일으키는 감각이라.

16 세 번째는 듣는 감각이요, 가르침이 따라오는 것이라.

17 네 번째는 후각으로, 미각으로 공기와 호흡을 끌어들이니라.

18 다섯째는 말의 능력이니 이에 지식이 따르느니라.

19 여섯째는 미각으로 고기와 음료를 먹을 때 수반되는데, 그것으로 힘이 생겨나니, 이는 음식에 힘의 기초가 있기 때문이라.

20 일곱째는 해산과 성교의 능력이라, 쾌락을 사랑함으로 죄가 들어가느니라.

21 그런즉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서 맨 나중이요, 청년의 질서에 있어 처음이요, 무지가 가득하여 소경을 구덩이에, 짐승을 벼랑으로 인도함과 같으니라.

22 이 모든 것 외에 여덟 번째 잠의 영이 있는데, 이것으로 본성과 죽음의 비몽사몽을 가져오느니라.

23 이 영들에는 미혹의 영들이 섞여 있노라.

24 첫째, 음행의 영은 본성과 감각에 자리 잡고 있으며;

25 둘째, 배 속에 있는 만족할 줄 모르는 영이 있으며;

26 셋째, 싸움의 영은 간과 쓸개에 있노라.

27 네 번째는 음탕하고 간사한 영으로 주제 넘는 주의를 통해서 사람이 겉보기에는 멋져 보이는 것이라.

28 다섯째는 교만의 영이니 이는 자랑하기 좋아하며 거만해지는 것이라.

29 여섯째는 거짓말하는 영이니 멸망하는 것이며 속임을 실천하는 질투이며 친척과 친구에게 숨기는 것이라.

30 일곱째는 불의의 영이니 도둑질과 탐욕의 행위에 있으며, 사람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불의가 선물을 받음으로 다른 영들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

31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잠의 영, 곧 오류와 몽상의 영이 결합되어 있느니라.

32 그래서 젊은이마다 이와 같이 멸망하여 그 마음이 진리에서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며 그 열조의 훈계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마치 내가 젊었을 때에 내게 임한 것과 같으니라.

33 이제 내 자녀들아, 진리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보전하리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르우벤의 말을 들으라.

34 여자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35 남의 아내와 교제하지 말고;

36 여자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37 내가 빌하가 가려진 곳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큰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였으리라.

38 내가 그 여자의 하체를 생각하였으므로 가증한 일을 행하기까지 잠들지 못하였느니라.

39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갔을 때에 우리가 베들레헴 에브라타에 가까운 에델에 있을 때에 빌하가 술에 취하여 그 방에서 벌거벗고 잠들어 있었노라.

40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서 그녀의 하체를 보고 그녀가 깨닫지 못한 채 불경건한 일을 행하고 잠자고 있는 것을 뒤로 한 채 떠났느니라.

41 그리고 곧 하나님의 천사가 나의 불경에 관하여 내 아버지에게 계시하매 그가 와서 나를 위하여 슬퍼하였고, 다시는 그녀를 만지지 아니하였노라.

2장

르우벤은 자신의 경험과 좋은 충고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여자의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직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선한 일과 연구와 너희들의 양 떼에 힘쓰라. 주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아내를 주실 때까지는 나같이 고난을 받지 않게 하거라.

2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그 치욕으로 인하여 그의 낯을 담대히 뵈올 수 없었고 내 형제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노라.

3 내 경건치 아니함을 인하여 지금까지 내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4 그러나 내 아버지는 나를 많이 위로하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주님의 진노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려 하심이였느니라.

5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깨어 있어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6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키라. 그리하면 범죄치 아니하리라.

7 음행의 죄는 영혼의 함정이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며 우상을 가까이 하게 하나니,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과 총명을 속이고 그들의 때가 되기 전에 청년을 음부로 인도함이라.

8 많은 사람이 음행으로 멸망하였고 이는 사람이 늙거나 고귀하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으며 그는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자신에게 치욕을 가져오고 벨리알(지옥의 대왕)과 함께 조롱을 가져오느니라.

9 요셉이 여자에게서 자기를 지키며 모든 음행에서 그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10 애굽 여자가 그에게 많은 일을 행하고 마술사들을 불러 그에게 사랑의 묘약을 주었으나 그의 마음의 뜻은 악한 욕망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 그러므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모든 악과 숨은 사망에서 건지셨느니라.

12 음행이 네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벨리알도 너를 이길 수 없느니라.

13 내 자녀들아 여자들은 악하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를 극복할 힘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외적인 유혹으로 간사를 사용하여 남자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느니라.

14 외적인 유혹으로 능히 미혹할 수 없는 자는 속임수로 이기느니라.

15 또 여자들에 관하여는 주의 사자가 내게 말하여 가르쳐 이르되 여자가 남자보다 음행의 영에 더 많이 지고 그녀들의 마음에서 남자를 쫓는 것을 계획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장식으로 그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눈의 시선으로 독을 주입한 다음, 성취된 행동을 통해 남자들을 사로잡느니라.

16 여자는 남자를 드러내놓고 강요할 수 없지만 창녀의 몸가짐으로 남자를 쫓는도다.

17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음행을 피하고 너희 아내와 딸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속이기 위해 자기 머리와 얼굴을 꾸미지 말라고 하라. 이는 여자마다 이 간사한 묵욕을 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 예비되었노라.

18 이는 그들이 홍수 전의 천사들을 이같이 유혹하였음이라. 이는 천사들이 계속해서 그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그녀들을 강하게 탐내고 그들의 마음에 행동을 잉태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하여 그녀들이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느니라.

19 그 형상을 좇아 마음에 음욕을 품은 여자들이 거인을 낳으니 이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하늘에 닿는 것과 같이 나타났음이라.

20 그러므로 음행을 조심하거라.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여자에게서 너의 감각을 지키거라.

21 또 여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명령하여 남자와 교제하지 말며 이는 그들도 마음이 정결하게 하려 함이니라.

22 지속적인 만남이 비록 불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우리에게는 벨리알의 파멸이요, 영원한 치욕이니라.

23 음행에는 명철도 없고 경건도 없고 모든 질투가 그 정욕에 거함이니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자손을 질투하여 그들 위에 높임을 받으려 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는 할 수 없으리라.

25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한을 풀어 주시리니 너희가 악한 죽음으로 죽으리라. 하나님이 레위와 그와 함께 유다와 나와 단과 요셉에게 주권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통치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레위가 주님의 법을 알고 심판의 규례를 줄 것이라, 그리고 레위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때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려야 하리라.

27 내가 하늘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각기 이웃에게 진실을 행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28 너희는 마음에서 겸손함으로 레위를 가까이 하여 그의 입에서 축복을 받으라.

29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축복할 것은 주님께서 그를 온 민족의 왕으로 택하셨음이라.

30 그의 씨 앞에 앉드리라.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죽고 너희 중에 영원한 왕이 되리라.

31 르우벤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 명령을 준 후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애굽에서 떼어올 때까지 관에 넣었고 그리고 헤브론의 그의 아버지가 있던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The Testament of Simeon

시므온의 유언

야곱과 레아의 둘째 아들

1장

야곱과 레아의 둘째 아들 시므온. 강한 남자. 그는 요셉을 질투하게 되고 요셉에 대한 음모를 선동합니다.

시므온이 백이십 살이 되었을 때에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한 말을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죽은 해에 요셉도 죽었습니다.

2 시므온이 병들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보러 왔으며 그가 힘을 내어 앉아서 그들에게 입맞추며 말하되:--

3 내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시므온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고백하겠노라.

4 나는 야곱에게서 내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노라. 내 어머니 레아가 나를 시므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음이라.

5 더욱이 내가 심히 강건하여, 나는 아무 성취도 없이도 풍무니를 빼고 피했고, 책임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이는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간이 움직이지 아니하며 내 창자가 공허이 없었음이라.

6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용기를 영혼과 육체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7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요셉을 많은 일로 질투하였으니 이는 내 아버지가 그를 우리 모두보다 사랑하였음이라.

8 속임수의 왕자(사탄)가 질투하는 영을 보내어 내 마음을 장님이 되게 하여 그를 멸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를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야곱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9 그러나 그의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10 내가 양 떼를 위한 연고를 가지러 세겔으로 갔고, 르우벤은 우리의 생필품과 모든 창고가 있는 도단으로 갔을 때에 내 형제 유다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음이라.

11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니 이는 그를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함이었노라.

12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듣고 유다가 그를 산 채로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 대하여 심히 노하여 다섯 달 동안 그에게 계속 노하였노라.

13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금하시고 내 손의 힘을 막으시니 내 오른손이 칠 일 동안 절반이 말랐노라.

14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요셉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 것을 알고 회개하고 울었노라. 나는 내 손이 회복되어 모든 불결과 시기와 모든 어리석음에서 멀어지게 해 달라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노라.

15 내가 내 형제 요셉을 시기하여 주님과 내 아버지 야곱 앞에서 내가 악한 일을 꾀한 줄을 깨달았음이라.

16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속임수와 시기의 영을 조심하라.

17 시기는 사람의 전체 마음을 지배하여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하며 선한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그가 부러워하는 그를 멸망시키라고 항상 제안하느니라. 그리고 부러움을 받는 자는 변성하는 반면, 시기하는 자는 쇠퇴하느니라.

18 그러므로 내가 이 년 동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시기에서 건짐을 받는 줄을 배웠노라.

19 만일 사람이 주님에게로 도망친다면,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의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20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시기하는 자를 동정하고 자기에게 적대시하는 자를 용서하면서 그 시기를 그치느니라.

2장

르우벤은 듣는 이들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내가 슬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관해 물으셨노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간에 통증이 있나이다.

2 내가 그들보다 더 애통하였으니 이는 내가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죄가 있느니라.

3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요셉이 나를 정탐꾼으로 결박할 때에 내가 정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고 슬퍼하지 아니하였노라.

4 요셉은 선한 사람ियो.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내게 악의를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였노라.

5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모든 질투와 시기를 삼가고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요셉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너희 머리 위에 내리시리라.

6 요셉이 평생에 이 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기 영혼 같이 사랑하고 자기 아들들보다 더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재물과 가축과 실과를 주었느니라.

7 내 자녀들아 너희도 선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너희에게서 떠나리라.

8 시기는 혼을 야만스럽게 하고 몸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것은 마음에 노함과 전쟁을 일으키고, 피의 행동을 선동하며, 마음을 광란하게 하며, 혼을 요동케 하고 몸을 떨게 하느니라.

9 악한 질투는 잠자는 중에도 갇아먹으며, 악한 영으로 혼을 번뇌케 하며, 몸을 괴롭게 하며, 혼돈으로 마음을 잠에서 깨우며, 사악하고 독이 있는 영처럼 사람에게 나타나느니라.

10 그런즉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고 귀품이 있었으니 그 속에 악이 거하지 아니함이라. 영의 어떤 괴로움이 얼굴에 나타나느니라.

11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주 앞에서 너희 마음을 선하게 하고 사람 앞에서 너희 길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와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으리라

12 그러므로 음행을 삼가라. 음행은 모든 악의 어미라, 하나님을 떠나 벨리알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라.

13 에녹의 글에 너희 아들들이 음행으로 부패하여 칼로 레위 자손을 해할 것이라는 글을 내가 보았노라.

14 그러나 그들은 레위를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주님의 전쟁을 일으키고 너희 모든 군대를 정복할 것이기 때문이라.

15 그들의 수가 적으며 레위와 유다로 나뉘겠고 너희 중에 통치권을 차지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시면서 예언하였느니라.

3장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

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 이제 너희가 너희의 시기심과 모든 목의 뾰뾰함을 제거하면, 이스라엘에서 내 뼈가 장미같이 번성할 것이요, 내 살은 야곱 안에서 백합화 같을 것이고 내 향기는 레바논 산의 냄새 같을 것이라. 그리고 백향목 같이 거룩한 자가 나에게서 영원토록 번성하리라. 그 가지가 멀리 뻗을 것이니라.

3 그 때에 가나안의 씨가 멸망할 것이요. 남은 자가 아말렉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갇바도키아 사람이 멸망하며 모든 헛 족속이 진멸되리라.

4 그 때에 함 땅이 멸망하고 모든 백성이 멸망하리라.

5 그 때에 온 땅이 환난에서 쉬고 천하 온 세상이 전쟁에서 쉬리라.

6 그 때에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샘을 영화롭게 하시리로다.

7 주 하나님이 땅에 나타나사 친히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8 그 때에 모든 속이는 영들이 발에게 밟히게 되며 사람들이 악한 영들을 다스리게 되리라.

9 그 때에 내가 기쁨으로 일어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송축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한 몸을 취하사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구원하심이니라.

10 이제 내 자녀들아, 그리고 유다야, 레위와 유다에게 순종하고 이 두 지파를 치지 말라. 왜냐 하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임이라.

11 주님께서 레위에게서는 대제사장과 같이 일어나시며, 유다에게서는 왕과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일어나실 것이며, 모든 이방인과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실 것임이라.

12 그러므로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대대로 지키게 하라.

13 시므온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매 백이십 세의 나이로 그들 조상들과 함께 잤습니다.

14 그들이 그의 뼈를 헤브론으로 옮기기 위해 그를 나무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전쟁 중에 비밀리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요셉의 뼈는 애굽인들이 왕들의 무덤에서 지켰습니다.

15 마술사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셉의 뼈가 떠날 때에 온 땅에 흑암과 어둠이 있고 애굽 사람에게 심히 큰 재앙이 있어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도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

다.

16 시므온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17 그들이 모세의 손에 이끌려 떠나는 날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The Testament of Levi

레위의 유언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

1장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 신비롭고 꿈을 꿈꾸는 예언자.

레위의 말, 곧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신 일, 곧 그들이 행할 모든 일과 심판의 날까지 그들에게 임할 일입니다.

2 그가 그들을 부를 때에는 그는 건강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3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4 나 레위는 하란에서 태어나 내 아버지와 함께 세겔에 이르렀노라.

5 내가 젊어서 이십 세쯤 되어 시므온과 함께 우리 누이 디나를 위하여 하물에게 원수를 갚았을 때에,

6 내가 아벨마울에서 양 떼를 칠 때에, 주님을 깨닫는 영이 내게 임하신지라. 내가 보니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길에 부패하고, 불의가 스스로 성벽을 쌓았고, 불법이 망대 위에 앉아 있었노라.

7 또 내가 사람의 족속을 위하여 슬퍼하며 내가 구원을 받기를 주께 기도하였노라.

8 그 때에 거기서 내가 잠에 굶아 떨어졌는데 내가 높은 산을 보니 그 위에 있더라.

9 또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레위야 들어가라 하더라.

10 그리고 내가 첫째 하늘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큰 바다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노라.

11 또 내가 보니 둘째 하늘이 훨씬 더 밝고 더 빛나니 그 안에도 무한한 빛이 있음이라.

12 내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내가 더 빛나고 비할 데 없는 다른 하늘을 보리라.

13 내가 그리로 올라간 후에 너는 주님 가까이 서서 그의 일꾼이 되어 그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를 가리켜 선포해야 하리라.

14 주님께서 너와 유다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사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리로다.

15 네 생명은 주님의 분깃이요. 그는 네 밭과 포도원과 실과와 금과 은이 되시리라.

16 그런즉 네게 보이신 하늘에 대하여 들으라.

17 가장 낮은 것이 사람의 모든 불의한 행위를 꿰뚫어 보므로 이로 말미암아 네가 침울하도다.

18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의 날을 위하여, 불과 눈과 얼음이 예비되어 있도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간 위에 임할 복수에 대한 보복의 모든 영이 있기 때문이라.

19 그리고 두 번째에는 기만과 벨리알의 영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심판의 날을 위해 작정된 군대의 무리가 있느니라.

20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한 자들이 있도다.

21 그리고 모든 것의 가장 높은 곳에는 모든 신성한 것보다 훨씬 더한 위대한 영광이 거하시느니라.

22 그 옆 하늘에는 의인의 무지한 모든 죄를 위하여 주를 섬기며 화목하는 천사장들이 있느니라.

23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풍미가 있으며 합당하며 상처가 없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라.

24 그리고 이 아래 하늘에는 주님의 임재의 천사들에게 대답하는 천사들이 있느니라.

25 그 옆 하늘에는 보좌와 권세들이 있어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느니라.

26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즉 우리가 다 떨고 참으로 하늘과 땅과 지옥이 그의 위엄 앞에서 흔들리느니라.

27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노엽게 하는도다.

2장

레위는 경건과 교육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실 줄을 알라.

2 바위가 갈라지고 해가 그치고 물이 말랐고 불이 꺼지며 만물이 괴로움을 당하며 보이지 않는 영들이 녹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음부가 전리품을 탈취함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의 죄악에 거할 것이라.

3 이 때문에 그들은 형벌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4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너는 그 분 앞에서 아들이요, 종이며, 그 분의 임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5 주께서 지식의 빛을 야곱 안에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태양과 같이 되리라.

6 또 주님께서 그의 온화한 자비로 계속 모든 이방을 돌보실 때까지 축복이 너와 네 모든 자손에게 주어질 것이요.

7 그러므로 당신이 이것에 관하여 당신의 아들들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조언과 이해력이 주어졌느니라.

8 그분을 송축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그분을 저주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라.

9 이에 그 천사가 나에게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보니 거룩한 성전과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보좌가 있더라.

10 그 분(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 레위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서 거하기까지 제사장 직분의 축복을 네게 주었노라.

11 그 천사가 나를 땅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방패와 칼을 주며 내게 이르되: 네 누이 디나로 말미암아 세겜에 원수를 갚으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므로 내가 함께 있으리라.

12 그 때에 내가 하물의 아들들을 멸하였나니, 이는 하늘의 탁자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13 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님 원하건대 주의 이름을 내게 말씀하사 환난 날에 내가 주를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14 그가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간구하는 천사니 모든 악한 영이 그것을 공격하나니 그들이 완전히 상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5 이 일 후에 내가 깨어 지극히 높으신 이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의인을 위하여 중재하는 천사를 송축하였노라.

3장

레위는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의인을 위해 준비된 상급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가다가 늦방패를 찾았노라. 그런즉 그 산 이름도 아스피스, 아빌라 남쪽 그 밭 근처에 있도다.

2 그리고 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노라. 그 후에 내가 내 아버지와 내 형제 르우벤에게 하물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권고하였노니 그들이 내 누이에게 행한 가증한 일 때문에 내가 열심이였노라.

3 내가 먼저 세겜을 죽이고 시므온이 하물을 죽였느니라. 그 후에 내 형제들이 와서 칼날로 그 성을 쳤느니라.

4 내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후에 죽임을 당함을 인하여 근심하시며 그의 축복에 대하여 우리를 옳지 않게 여기셨느니라.

5 우리가 그의 뜻에 반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고 그가 그 날에 병들었느니라.

6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징벌이 세겜에 대한 재앙임을 보았노라. 이는 그들이 우리 누이 디나에게 행한 것 같이 사라와 리브가에게 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음이라.

7 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을 때에 핍박하였고 젊은 새끼로 크게 되었을 때에 양떼를 괴롭게 하였더니 그리고 그의 집에서 태어난 Eblaen을 가장 수치스럽게 다루었느니라.

8 그들은 모든 나그네에게 아내를 억지로 빼앗고 쫓아내었느니라.

9 그러나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극도로 임하였느니라.

10 내가 내 아버지 야곱에게 아뢰되: 주님께서 당신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을 노략하시고 그들의 땅을 당신 후손에게 주실 것이니이다.

11 오늘부터 세겜은 무능한 성읍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이 미련한 자를 조롱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조롱하였느니라.

12 이는 그들이 내 누이를 더럽혀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리고 우리는 떠나 베델에 이르렀느니라.

13 우리가 거기에서 칠십 일을 보낸 후에 내가 거기서 다시 처음과 같은 환상을 보았노라.

14 또 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일곱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제사장의 겹옷과 의의 면류관과 명철의 흉패와 진리의 예복과 믿음의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고 예언의 에봇을 입으라.

15 그들이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가져와서 내게 입히고 내게 이르되: 이제부터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주의 제사장이 되리라.

16 그 첫째가 내게 성유를 부으며 심판의 지팡이를 내게 주었느니라.

17 둘째는 정결함으로 나를 씻으셨노라. 물을 주시며 떡과 포도주로 지성물(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이시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예복을 입히셨느니라.

18 셋째는 나에게 에봇 같은 세마포 겹옷을 입히셨느니라.

19 네 번째는 자주색 같은 띠를 내게 둘렀느니라.

20 다섯째는 풍성한 올리브 한 가지를 나에게 주었느니라.

21 여섯째는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느니라.

22 일곱째는 제사장의 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내 손을 유향으로 잠기게 했으며 내가 주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였느니라.

23 그들이 내게 이르되: 레위야. 네 자손이 세 직분으로 나뉘리니 이는 장차 올 주님의 영광의 표적이 되리라.

24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크게 될 것이라. 예,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느니라.

25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 안에 있을 것이라.

26 세 번째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니 이는 이방인의 유행을 따라 왕이 유다에서 일어나서 새 제사장 직분을 세울 것임이니라.

27 그분의 임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씨로 사랑하심을 입었느니라.

28 그런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모하는 것은 너희들과 네 자손을 위한 것이요.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요. 주님의 상에서 네 자손에게 분배되리라.

29 그들 중 더러는 대제사장과 재판관과 서기관이 될 것이요. 그들의 입으로 거룩한 곳이 보호될 것이기 때문이라.

30 그리고 내가 깨어 났을 때, 나는 이 꿈이 첫 번째 꿈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노라. 또 이것을 내 마음에 숨기고 이 땅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31 이틀 후에 나와 유다는 우리 아버지 야곱과 함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올라갔느니라.

32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는 내가 본 환상의 모든 말씀대로 내게 축복을 주었노라.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베델에 오지 않았느니라.

33 그리고 우리가 뻘엘에 이르렀을 때, 나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제사장이 되는 것에 관한 환상을 보았느니라.

34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의 십일조를 주님께 드렸더니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거하였노라.

35 이삭이 나를 계속 불러 주님의 사자가 내게 보여준 것과 같이 나를 불러 주님의 법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36 또 그가 제사에 대한 제사장 직분의 법을 내게 가르치시되 전체를 태우는 제사(번제), 첫 열매 제사, 자원하는 제사, 화평 제사(화목제)를 가르쳤느니라.

37 그가 날마다 나를 가르치고 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수고하며 내게 이르되: 음행의 영을 조심하라. 이는 계속되어 네 씨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힐 것임이니라.

38 그런즉 너는 아직 어리고 타국 족속이 아닌 흠 없고 더러움이 없는 아내를 취하라.

39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을 하거라. 그리고 네가 희생물을 바칠 때 씻으라. 그리고 다시 네가 희생 제사를 마치면 씻으라.

40 아브라함이 나에게 가르친 대로 잎을 가진 열두 나무를 주님께 드려라.

41 반드시 정결한 짐승과 새를 주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릴지라.

42 네 모든 처음 익은 열매와 포도주 중에서 첫 것을 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모든 희생은 소금으로 소금에 절일지니라.

43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라. 내가 내 조상들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고하였느니라.

44 그리고 보라, 너희가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말세에 범할 너희의 경건치 아니함과 범죄에서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경건치 아니하게 행하며 이스라엘을 쫓고 그것을 치게 하여 주께로부터 큰 재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

45 너희가 이스라엘과 함께 불법을 행하면 주님께서 너희의 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성전의 휘장은 너의 수치를 가리지 않도록 찢어질 것이니라.

46 너희는 포로가 되어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지며 거기서 치욕과 저주를 받으리라.

47 주님께서 택하실 집은 의인 에녹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이라 불릴 것이라.

48 내가 아내를 얻었을 때 나는 이십팔 세였으며 그녀의 이름은 멜가였노라.

49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우리가 우리 땅에서 나그네였으므로 내가 그 이름을 게르삼이라 하였노라.

50 그리고 나는 그에 관하여 그가 일순위가 되지 못할 것을 보았노라.

51 그리고 고태이 내 나이 삼십오 년에 해 뜨는 곳을 향하여 태어났노라.

52 또 내가 환상 중에 그가 온 회중 가운데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노라.

53 그러므로 내가 그의 이름을 고태이라 하였으니 곧 위엄과 훈계의 시작이니라.

54 그리고 그녀는 내 나이 사십 년에 나에게 셋째 아들을 낳았느니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힘들게 낳았으므로 그를 므라리, 즉 '나의 괴로움'이라고 불렀노라. 므라리도 거의 죽게 되었노라.

55 그리고 요게벳이 태어났노라. 내 나이 육십사 년에 애굽에서 낳았으니 이는 내가 그 때에 내 형제들 가운데서 유명하였음이라.

56 게르삼이 아내를 취하여 그에게 롬니와 세므이를 낳았고 고태의 아들은 암브람과 잇사갈과 헤브론과 오셀이라. 그리고 Merari, Mooli, Mouses의 아들들.

57 내 나이 구십사 년에 암브람이 내 딸 요게벳을 그에게 아내로 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내 딸이 같은 날에 태어났음이라.

58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가 여덟 살이었고, 세겜 땅에 들어갈 때에 열여덟 살이었고, 열아홉 살에 제사장이 되었으며, 이십팔 세에 아내를 맞이하고 마흔여덟 살에 애굽에 갔노라.

59 그리고 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삼대째이라. 내 나이 백십팔 년에 요셉이 죽었느니라.

4장

레위는 지혜가 멸망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법을 따라 우직하게 행하라.

2 또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글을 가르쳐서 그들이 평생에 깨달아 하나님의 법을 쉬지 않고 읽게 하라.

3 무릇 주의 법을 아는 자는 존경을 받을 것이요. 어디로 가든지 나그네가 되지 아니하리라.

4 참으로 그 부모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를 섬기고 그의 입에서 법을 듣고자 하리라.

5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의를 땅에서 행하여 하늘에서 보배 같이 얻게 하라.

6 그리고 너희들의 영혼에 좋은 것들을 심으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7 그러나 너희가 악을 심으면 모든 환난과 고난을 거두리라.

8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라.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과 땅이 멸망하며 금과 은과 모든 소유가 사라지더라도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능히 빼앗아 갈 수 없나니, 경건치 아니함의 눈먼 것과 죄에서 오는 냉담함에서 구해지리라.

9 사람이 이 악한 일을 멀리하면 그 원수 중에도 지혜가 그에게 영광이 될 것이요. 낯선 나라에서는 조국이 되고 원수 가운데에서는 친구가 되리라.

10 누구든지 고귀한 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내 형제 요셉과 같이 왕으로 즉위하리라.

11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내가 말세에 너희가 주께 범죄하며 악에 손을 뻗쳐 주께 대적할 것을 내가 알았노라. 모든 이방인에게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리라.

12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은 [세상의 구주에게 손을 댈] 대제사장들의 범죄에서 깨끗하니라.

13 주님 보시기에 하늘이 땅보다 더 깨끗한 것 같이 너희 이스라엘의 빛들이 너희도 또한 그럴 지라. 모든 이방인보다 더 깨끗할지이다.

14 그러나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면 모든 이방인이 눈먼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하겠느냐?

15 참으로 너희는 우리 족속에게 저주를 가져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법의 빛은 모든 사람을 가 법게 하려고 주어진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나는 계명을 가르쳐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이니라.

16 너희가 주님의 제물을 도적질하고 그의 분깃 중에서 택한 것을 도적질하여 창녀와 함께 욕되 게 먹으리라.

17 또 너희가 탐심으로 주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요, 결혼한 여자들을 더럽힐 것이요, 예루살렘 의 처녀들을 더럽힐 것이요, 음녀와 간통한 여자와 교제하고,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불법한 정결케 함으로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결합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 라.

18 또 너희가 너희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사람을 대적할 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슬러 스스로 자만하리라.

19 너희가 희롱과 웃음으로 성물을 멸시하리라.

20 그러므로 주님께서 택하신 성전이 너희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 희가 모든 나라에서 포로가 될 것이라.

21 너희는 그들에게 가증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치욕과 영원한 수치 를 받으리라.

22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멸망을 기뻐할 것이라.

23 또 너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지 아니하면 우리 자손 이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아니할 것이요.

24 그리고 이제 나는 칠십 이레 동안 너희가 그릇 행하여 제사장 직분을 욕되게 하고 제사를 더럽힐 것을 알았노라.

25 또 너희가 법을 폐하며 악한 패역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멸시하리라.

26 너희가 의인을 핍박하고 신실한 자들을 미워하리니 독실한 자들의 말을 미워하리라.

27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으로 법을 새롭게 하는 사람을 너희가 미혹하는 자라 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너희는 그의 존엄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가서 너희 머리의 사악함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리라.

28 또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성소가 황무하여 땅에 묻히리라.

29 그리고 너희에게 깨끗한 곳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가 다시 너희를 방문할 때까지 이방인 중에서 저주와 흠이 되리니 믿음과 물로 너희가 긍휼함을 받아야 하리라.

5장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심보다 1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칠십 이레에 관하여 들었으나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도 들으라. 각 희년에는 제사장 직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2 첫째 희년에는 먼저 제사장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아버지께 말하듯이 하나님께 아뢰리라.

3 그의 제사장 직분은 주와 함께 완전할 것이요, 그의 기쁨의 날에 그가 세상 구원을 위하여 일어나리라.

4 둘째 희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들의 근심 중에 잉태되리니 그의 제사장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며 영화롭게 될 것이라.

5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은 슬픔으로 붙잡힐 것이라.

6 넷째는 고통을 받으리니 이는 불의가 심히 모여 그를 칠 것이며 온 이스라엘이 각기 그 이웃

을 미워할 것이라.

7 다섯째는 흑암에 사로잡히리라. 여섯째와 일곱째도 마찬가지로.

8 그리고 일곱째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질 것이니 이는 그들이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자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

9 그러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노획물이 될 것이며 그들의 땅과 그들의 재물이 멸망될 것이라.

10 다섯째 주에 그들이 황무한 본국로 돌아가서 주님의 집을 새롭게 할 것이요.

11 일곱째 이레 때에 제사장은 우상 숭배자요, 간음하는 자요,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무법하고 음탕하고 어린아이와 짐승을 학대하는 자니라.

12 그리고 그들의 형벌이 주님께로부터 온 후에, 제사장 직분은 끊어질 것이라.

13 그 때에 주님께서 새 제사장을 일으키시리라.

14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리니, 그가 많은 날 동안 땅에 의로운 심판을 집행할 것이라.

15 그리고 그분의 별은 왕처럼 하늘에서 떠오를 것이라.

16 지식의 빛을 해와 같이 비추며 그분이 세상에서 찬송함을 받으리라.

17 그분이 해와 같이 땅을 비추사 천하에서 모든 흑암을 제거하시리니 온 땅에 평화가 있으리라.

18 하늘이 그분의 날에 환희하고 땅이 기뻐하며 구름이 환호할 것이요.

19 주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의 물 같이 땅에 쏟아지리라.

20 주의 임재의 영광의 천사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21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성전에서 신성이 그분에게 임하시니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있었던 아버지의 음성이 함께 하리라.

22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그(예수) 위에 말하시고 명철과 신성케 하는 영이 물 속에서 그 위에 머물리라.

23 하나님이 주님의 위엄을 진실로 그의 아들에게 영원히 주시리라.

24 그리고 영원히 모든 세대에서 그를 계승할 자가 없을 것이라.

25 그리고 그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인들이 땅에서 지식이 많아지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얻으리라. 그의 제사장 직분으로 죄가 그치고 불법한 자들이 악을 행하기를 그치리라.

26 그가 낙원의 문을 열고 아담에 대항하는 위협하는 칼을 제하시고 성도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시리니 거룩한 영이 그들 위에 있으리라.

27 벨리알은 그에게 결박되며 그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어 악령을 밟게 하리라.

28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영원히 많이 즐거워하시리라.

29 그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옷을 입을리라.

30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모든 것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빛 또는 어둠, 주의 법 또는 벨리알의 일, 둘 중에서 선택하라.

31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의 법을 따라 행하리이다.

32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는 너희의 입의 말에 대하여 증인이요, 그의 천사들도 증인이요, 너희도 증인이요. 나도 증인이니라.

33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라.

34 이에 레위가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그쳤고 그가 백삼십칠 세를 살고 침상에서 발을 뻗고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35 그들이 그를 관에 넣고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 장사하였습니다.

The Testament of Judah

유다의 유언

야곱과 레아의 넷째 아들.

1장

야곱과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 그는 거인, 운동 선수, 전사입니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암사슴을 능가할 정도로 빨리 달립니다.

유다의 말,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한 말의 사본.

2 그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 가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유다의 말을 들으라.

3 나는 내 아버지 야곱에게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라. 내 어머니 레아가 나를 유다라 하여 가로되 내가 주님께 감사하노니 넷째 아들도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

4 나는 어릴 때 빠르고 모든 일에 아버지께 순종했노라.

5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와 어머니의 누이를 공경했느니라.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장성한 때에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네가 왕이 되어 범사에 형통하리라 하셨느니라.

7 주님께서 들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8 내가 암사슴을 몰고 잡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고기를 준비하였고 그가 잡수셨느니라.

9 그리고 내가 사냥에서 정복했던 노루는 평원에 있는 모든 것을 따라잡았느니라.

10 내가 야생 암말을 따라잡아 붙들어 길들였느니라.

11 내가 사자를 죽이고 그 입에서 한 아이를 뽑았노라.

12 내가 곰의 발을 잡고 절벽 아래로 던지니 으스러졌더라.

13 내가 멧돼지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붙잡고 갈기갈기 찢었노라.

14 헤브론에서 표범 한 마리가 내 개를 덮치매 내가 그 꼬리를 잡아 바위에 던졌더니 두 동강이 났느니라.

15 내가 들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야생 황소를 보고 그 뿔을 잡아 빙빙 돌게 하여 기절시키고 내가 죽였느니라.

16 가나안 족속의 두 왕이 갑옷을 입고 우리 무리에 대항하여 무장하여 그들과 함께한 많은 백성을 이끌고 치러 왔을 때에 내가 한 손으로 하솔 왕을 급히 쳐서 엎드려뜨리므로 내가 그를 죽였노라.

17 또 다른 하나는 답부아 왕이 자기 말을 탔을 때에 내가 죽였으므로 내가 그 모든 백성을 흠어지게 했노라.

18 왕 아골, 거인처럼 키가 큰 사람이 말을 타고 앉아서 앞뒤로 단창을 던지는 것을 내가 보고 무게가 육십 파운드나 되는 돌을 들어 던져서 그의 말을 쳐서 죽였노라.

19 그리고 나는 다른 자와 두 시간 동안 싸웠노라. 나는 그의 방패를 둘로 찢개고 그의 발을 베어 죽였느니라.

20 내가 그의 흉패를 벗길 때에 그의 동료 아홉 사람이 나와 싸우기 시작하였고,

21 그리고 나는 내 옷을 내 손에 감아서, 나는 그들에게 돌을 던져 그들 중 넷을 죽이고 나머지는 도망하였느니라.

22 내 아버지 야곱이 만왕의 왕 벨레삿을 죽였느니라. 그는 힘에 있어 거인이요, 키가 십이 규빗이라.

23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우리와 싸우기를 그쳤느니라.

24 그러므로 내가 내 형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 아버지는 전쟁 중에 근심하지 아니하셨느니라.

25 그가 환상 중에 나에 관한 것을 보셨으니 이는 능력의 천사가 내가 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사방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26 그리고 남쪽에서 세겜보다 더 큰 전쟁이 우리를 덮쳤느니라. 나는 내 형제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고 천 명을 추격하여 그 중에서 이백 명과 네 왕을 죽였느니라.

27 그리고 내가 성벽에 올라가서 용사 네 사람을 죽였느니라.

28 그리하여 우리는 하술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모두 빼앗았느니라.

29 이튿날 우리는 견고하고 성벽이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성읍, 곧 우리를 죽이기로 위협하는, 아레단으로 출발했노라.

30 나와 갓은 그 성읍의 동쪽으로, 르우벤과 레위는 서쪽으로 나아갔고,

31 성벽 위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혼자인 줄로 생각하고 우리를 치다가 엎드러졌느니라.

32 그래서 내 형제들은 비밀리에 각각 양쪽 성벽을 올라 그 성에 들어갔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느니라.

33 그리고 우리는 그 성을 칼날로 빼앗았느니라.

34 망대에 피신한 자들을 우리가 망대에 불을 지르고 모두 빼앗았느니라.

35 우리가 떠날 때에 답부아 사람들이 우리의 탈취물을 탈취하는 것을 보고 그들과 싸웠느니라.

36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죽였고, 우리의 전리품을 모두 되찾았느니라.

37 내가 고세바 물가에 있을 때에 요벨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느니라.

38 우리는 그들과 싸워 그들을 쳤느니라. 우리가 실로에서 온 그들의 동맹자들을 죽였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힘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느니라.

39 그리고 다섯째 날에 마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전리품을 탈취하였는데,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여 격렬한 전투로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그들 중에 많은 용사들이 있음이라. 그들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죽였음이라.

40 우리가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여인들이 그 성읍이 서 있던 산 벵랑에서 우리를 향해 돌을 굴렸느니라.

41 나와 시므온은 성읍 뒤에 숨어 산들을 점령하고 이 성읍도 멸하였느니라.

42 이튿날 가아스 성의 왕과 함께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치러온다는 것을 들었느니라.

43 그러므로 나와 단은 우리가 아모리 사람인 척 가장하고 동맹처럼 그들의 성읍으로 들어갔느니라.

44 그리고 깊은 밤에 우리 형제들이 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었느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사냥으로 삼고 그들의 세 벽을 허물었느니라.

45 그리고 우리는 적대하는 왕들의 모든 재물이 있는 탐나에 가까이 갔느니라.

46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여, 분노하여 그들 꼭대기로 급히 올라갔고 그들은 나를 향해 돌과 화살을 계속 던졌느니라.

47 내 형 단이 나를 돕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나를 죽였으리라.

48 그러므로 우리가 진노하여 그들에게 이르렀고 그들이 다 도망하였느니라. 그들은 다른 길로 지나가다가 내 아버지와 싸웠고 아버지는 그들과 화친하였느니라.

49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속국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들의 전리품을 그들에게 도로 주었느니라.

50 그리고 나는 탐나를 건축했고 내 아버지는 파바엘을 건축했느니라.

51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스무 살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나와 내 형제들을 두려워했느니라.

52 또 내게 가족이 많았고 아들람 사람 이람을 목동장으로 삼았느니라.

53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갔을 때 나는 아들람의 왕 파사바를 보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느니라. 내가 흥분되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 그의 딸 밧슈아를 아내로 주었느니라.

54 그녀가 나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그 중 두 사람은 주님께서 치셨고 이에 셀라가 살았고 그의 자녀가 너희임이라.

2장

유다는 철로 된 성벽과 솥쇠로 된 문이 있는 도시 발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모험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십팔 년 동안 내 아버지는 그의 형 에서와 그의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으며 그 후 우리는 메소보다미아, 라반에서 왔습니다.

2 십팔 년이 차매 내 나이 사십 년에 내 아버지의 형 에서가 힘센고 강한 백성을 거느리고 우리에게 이르렀느니라.

3 야곱이 에서를 화살로 쳐서 그가 부상을 입고 세일 산에서 들려 올라가다가 아노니람에서 죽었느니라.

4 그리고 우리는 에서의 아들을 추격했느니라.

5 그들은 철로 된 성벽과 솥쇠로 된 문이 있는 성읍에 있었느니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위에 진을 치고 에워쌌느니라.

6 그들이 이십 일 동안에 우리에게 문을 열지 아니하매 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닥다리를 세우고 방패를 머리에 쓰고 올라갔는데 돌 공격을 견뎠는데 세 달란트나 되는 돌이었으며 나는 그들의 용사 넷을 죽였느니라.

7 그리고 르우벤과 갓은 다른 여섯 사람을 죽였느니라.

8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평화의 조건을 물었느니라. 우리는 아버지와 의논하여 그들을 속국으로 받았느니라.

9 그들이 우리에게 밀 오백 고르와 기름 오백 바트와 포도주 오백 포대를 주었으니 우리가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 갈 때까지 그렇게 했노라.

10 그 후에 내 아들 엘이 아람의 딸 페소보다미아 사람 다말을 아내로 취하였느니라.

11 엘은 악하여 그는 다말을 원했노라. 왜냐하면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

12 그리고 제 삼일 밤에 주님의 천사가 그를 쳤느니라.

13 그가 그의 어머니의 악한 간계를 따라 그녀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에게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4 혼인 잔치 날에 내가 둘째 아들 오난을 그녀에게 주었느니라. 그 또한 사악함으로 비록 그가 그녀와 일 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15 내가 그를 위협할 때에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갔으나 그가 그의 어머니의 명령대로 그 씨를 땅에 쏟았고 그도 악으로 팔미암아 죽었느니라.

16 내가 셋째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고자 하였으나 그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녀가 다말에게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다말이 그녀와 같이 가나안의 딸이 아니기 때문이라.

17 또 내가 가나안 족속이 악한 줄을 알았으나 젊음의 충동이 내 마음을 눈멀게 하였느니라.

18 또 내가 그녀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볼 때에 포도주의 취함으로 인하여 내가 속아서 나의 아버지가 조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녀를 취하였느니라.

19 내가 없는 동안 그녀가 가서 셀라를 위해 가나안에서 여자를 데려왔느니라.

20 그리고 내가 그녀가 한 일을 알고, 내 영혼의 괴로움으로 그녀를 저주했느니라.

21 그리고 그녀도 그녀의 아들과 함께 그녀의 악으로 인해 죽었느니라.

22 이 일 후에 다말이 과부일 때에 내가 이 년 후에 내가 내 양털 깎으러 올라간다 함을 듣고 신부 단장하고 에나임 성 성문 곁에 앉았더라.

23 시집가려는 여자는 이레 동안 성문 곁에 앉아 음행하는 것이 아모리 족속의 규례라.

24 그러므로 내가 포도주에 취하여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녀의 단장 방식으로 나를 속였느니라.

25 내가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게 하라.

26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내 지팡이와 띠와 내 왕국의 왕관을 전당물로 주었느니라.

27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가 잉태하였느니라.

28 나는 내가 한 일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죽이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녀는 몰래 내 서약을 보냈고, 나를 부끄럽게 했느니라.

29 또 내가 그녀를 부를 때에 내가 술에 취해서 그녀에게 누울 때에 내가 한 은밀한 말도 내가 들었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녀를 죽일 수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라.

30 내가 말하기를 그녀가 다른 여자에게서 전당물을 받아 교묘히 행한 것이 아니냐 하였노라.

31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가중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32 또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녀가 다른 곳에서 와서 성문에 잠시 앉았으며 성문에 창녀가 없다고 하였느니라.

33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들어간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느니라.

34 그 후에 기근으로 팔미암아 우리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갔느니라.

35 그 때가 내가 사십육 세 였고, 일흔삼 년을 애굽에서 살았느니라.

3장

그는 포도주와 정욕을 두 가지 악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는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 하느니라." (13절)

이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 아비 유다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주님의 모든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2 너희 정욕을 좇지 말며 마음의 거만한 것으로 너희 생각의 상상을 좇지 말고 네 젊음의 행위와 힘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주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니라.

3 또 내가 전쟁 중에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 나를 꾀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아내 빌하로 말미암아 내 형 르우벤을 책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시기와 음행의 영이 나를 대적하였으므로 내가 가나안인 밋수아와 내 아들과 혼인한 다말과 누웠느니라.

4 내가 장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와 의논하고 네 딸을 데려가리라 하였느니라.

5 그가 내키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딸을 위하여 무궁무진한 금을 내게 보여줬는데 왜냐하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라.

6 그리고 그는 그녀를 금과 진주로 장식하고 그녀로 하여금 아름다운 여인들과 잔치에서 우리를 위해 포도주를 따르게 하였느니라.

7 포도주가 내 눈을 돌리게 하고 쾌락이 내 마음을 멀게 하였노라.

8 내가 반하게 되어 그녀와 동침하여 주님의 명령과 내 열조의 명령을 범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느니라.

9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게 갚으셨느니라.

10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포도주는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정욕을 불러일으키며 눈을 그릇 인도하게 하기 때문이라.

11 음행의 영은 포도주로 마음에 쾌락을 주는 일로 인도하는 것이라; 이 둘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

12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 음행에 이르게 하는 더러운 생각으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몸

을 뜨겁게 하여 육체의 결합에 이르게 하며 그리고 욕망의 기회가 있으면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지 않느니라.

13 나의 자녀들아, 술에 취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 술 취한 자는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함이니라.

14 보라 그것이 나를 범죄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중에 있는 무리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모두들의 눈 앞에서 다말 옆으로 돌아 누워 큰 죄를 저질렀으며 내 아들의 수치의 덮개를 벗겼느니라.

15 내가 포도주를 마신 후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지 아니하여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노라.

16 나의 자녀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노라. 여기에 포도주를 마시는 데 있어 신중함이 있으니,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사람은 마실 수 있느니라.

17 만일 이 한계를 넘어서면 속임의 영이 그 마음을 침노하여 술 취하는 자로 하여금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고 오히려 그 수치를 자랑하고 스스로 존귀하게 하게 하노라.

18 음행하는 자는 자기가 해를 입을 때를 알지 못하고 욕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19 사람이 왕이 되어 음행을 행하면 음행의 종이 되어 내가 겪은 것과 같이 왕위를 빼앗기느니라.

20 내가 내 지팡이를 주었으니 곧 내 족속의 지주이요; 그리고 내 띠, 즉 내 힘이요; 그리고 내 왕관, 즉 내 왕국의 영광이라.

21 그리고 참으로 나는 이 일들을 회개했노라. 포도주와 고기를 늪에서까지 먹지 아니하였고 어떤 즐거움도 보지 아니 하였느니라.

22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나에게 여자들이 왕과 거지를 똑같이 다스리는 것을 영원히 보여 주셨느니라.

23 그녀들이 왕에게서 그의 영광을, 용사에게서 그의 힘을, 거지에게서 그의 궁핍함의 버팀목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가느니라.

24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포도주의 올바른 한계를 지켜라. 그 안에는 네 가지 악한 영, 곧 정욕, 탐욕, 방탕, 더러운 이익의 네 가지 영이 있기 때문이다.

25 너희가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실진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라.

26 너희가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떠나면 술취함이 일어나고 부끄러움이 도적질함이니라.

27 그러나 너희가 술 취하지 않고자 한다면 포도주를 조금도 만지지 말라. 이는 너희가 격노와 다툼과 중상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어 너희들의 때가 되기 전에 멸망할까 함이니라.

28 또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의 비밀을 드러내나니, 내가 하나님이 나타내지 말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계명과 내 아버지 야곱의 비밀을 가나안 여자 밋수아에게 알게 하였노라.

29 그리고 포도주는 전쟁과 혼란의 원인이 되느니라.

30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돈을 사랑하지 말며 여자의 아름다움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는 내가 돈과 아름다움 때문에 가나안 사람 밋수아에게 미혹되었느니라.

31 이 두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내 족속이 죄악에 빠질 줄을 내가 아느니라.

32 이는 내 아들들 중에 지혜 있는 자라도 내가 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유다 나라를 그들이 훼손하여 쇠약하게 할 것임이니라.

33 내가 내 아버지 야곱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내가 행하였느니라.

34 내 아버지의 아버지 이삭이 나를 축복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고 야곱도 이와 같이 내게 축복하였느니라.

35 그리고 나는 왕국이 나에게서 세워질 것을 아느니라.

36 그리고 나는 너희가 마지막 날에 어떤 악을 행할 것인지 알고 있노라.

37 그런즉 내 자녀들아 음행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삼가고 너희 아비 유다에게 귀를 기울이라.

38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며 영혼의 성향을 눈멀게 하며 교만을 가르치며 사람으로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게 하느니라.

39 그들은 그의 영혼에서 모든 선함을 빼앗고 수고와 환난으로 그를 압박하며 그에게서 잠을 쫓아내고 그의 육체를 삼키리라.

40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느니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선지자가 말할 때에 청종치 아니하며 경건한 말씀을 분개하느니라.

41 그가 두 가지 반대되는 정욕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음은 그들이 그의 영혼을 눈멀게 하고, 그가 밤과 같이 낮에 행함이라.

42 나의 자녀들아, 돈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에 이르느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으로 말미암아 미혹될 때 신이 아닌 자들을 신이라 칭하고, 그것을 가진 자를 광기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

43 내가 돈을 위하여 자식을 잃었고 회개치 아니하고 내 굴욕과 내 아버지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자식 없이 죽었어야 하였느니라.

44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내 열조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느니라.

45 또 미혹의 왕이 나를 눈멀게 하였으므로 내가 사람으로 육체로 죄를 지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느니라. 그리고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의 나약함을 배웠느니라.

46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두 영, 곧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라.

47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마음의 이해의 영이 있으며, 마음은 그것이 속한 곳으로 어디로든지 향하느니라.

48 또 진리의 행실과 거짓된 행실은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고 주께서 그 각각을 아시느니라.

49 그리고 사람의 일은 숨길 수 있는 때가 없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 자체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50 그리고 진리의 영은 모든 것을 증언하고 모든 것을 참소하느니라. 그리고 죄인은 자기 마음에 의해서 불타서 재판장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느니라.

4장

유다는 폭정에 관해 생생한 비유를 하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도덕에 관해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레위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말라. 너희가 완전히 멸망할까 하노라.

2 주님께서 나에게 왕국을,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그 왕국을 제사장 직분 아래 두셨느니라.

3 그 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주셨느니라.

4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도 땅의 왕국보다 높으니, 만일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땅의 왕국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

5 주님의 사자가 내게 이르되: 주님께서 너보다 그를 택하사 그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분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좋은 것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그분에게 드리게 하셨노라; 그러나 너는 야곱의 왕이 될 것이라.

6 그리고 너는 그들 가운데 바다와 같이 될 것이라.

7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바다 위같이 요동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풍족할 동안, 어떤 사람은 사로잡혀 가고, 모든 족속이 네 안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궁핍하여 사로잡혀 가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약탈함으로 부요하게 되리라.

8 왕들은 바다 괴물과 같을 것이라.

9 그들이 물고기처럼 사람을 삼키며 자유민의 자녀를 종으로 삼고 집, 토지, 양 떼, 돈을 약탈할 것이라.

10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의 살로 부당하게 까마귀와 학을 먹일 것이며 그들이 큰 탐심으로 약으로 나아가며 폭풍우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모든 의인을 핍박하리로다.

11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서로 분열을 일으키실 것이라.

12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올 때까지 내 왕국이 다른 종족의 사람들 사이에서 끝나게 될 것이니라.

13 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야곱과 모든 이방인이 평안히 쉬리라.

14 그가 내 왕국의 권세를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는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씨에서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맹세로 나로 알게 하셨음이라.

15 내 자녀들아, 너희들의 음란과 마술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내가 심히 근심함이라. 이것들은 왕국에 대적하여 행하는 것이며, 유사한 영과 점치는 자와 미혹하는 귀신을 쫓는 것이라.

16 너희는 너희 딸들을 매춘부와 창녀로 노래하게 하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에 가담할 것이니라.

17 이리므로 주님께서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과 칼과 원수에게 포위당함과 친구를 욕하는 것과 자녀의 학살과 아내의 강간과 재물 약탈과 성전이 불타는 것과 땅의 황무함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종노릇 하는 것을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라.

18 그들이 그들의 아내를 위해 너희들을 고자로 만들 것이요.

19 주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에 따라 행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이방인 가운데에서 포로 된 것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

20 이 일 후에 한 별이 평안히 야곱에게서 너희들에게 떠오르리라.

21 내 씨에서 한 사람이 의의 해와 같이 일어나리라.

22 온유와 의로 사람의 아들과 함께 행하리라.

23 그리고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

24 그리고 그에게 하늘이 열리며, 그 영이 부어질 것이며, 심지어 거룩하신 아버지의 축복이 부어질 것이니라.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

25 그리고 너희는 진실로 그에게 아들이 될 것이요, 그의 계명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서 행해야 하리라.

26 그 때에 내 왕국의 규가 빛나고 그리고 너희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올 것이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방인을 향하여 의의 지팡이가 자라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라.

27 그리고 이 일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나리라. 나와 내 형제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될 것이라.

28 첫째는 레위요. 둘째는 나요. 셋째는 요셉이요. 넷째는 베냐민이요. 다섯째는 시므온이요. 여섯째는 잇사갈이요 그리고 모두 순서대로라.

29 주님께서 레위와 임재의 천사에게 복을 주시며 나에게는 영광의 능력, 시므온; 하늘, 르우벤 땅, 잇사갈; 바다, 스불론; 산, 요셉; 성막, 베냐민; 발광체, 단; 에덴, 납달리; 태양, 갓; 달, 아셀.

30 그리고 너희는 주의 백성이 되어 한 입술을 가질 것이라. 뿔리알의 속이는 영이 없을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불 속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라.

31 근심하다가 죽은 자들이 기쁨으로 일어날 것이요. 주님을 위해 가난했던 자들이 부요하게 될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받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32 야곱의 사슴은 기뻐 뛰며 이스라엘의 독수리는 즐거워하며 날 것이라. 온 백성이 영원히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33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주의 모든 법을 지키라. 그의 길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이니라.

3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백십구 세라. 오늘 너희 목전에서 죽느니라.

35 누구든지 나를 값진 의복으로 장사하지 말며 내 창자를 찢지 못하게 하라. 이는 왕들이 이 일을 행하리라. 나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다오.

36 유다는 이 말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여 그를 헤브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습니다.

The Testament of Issachar

잇사갈의 유언

야곱과 레아의 다섯째 아들.

1장

야곱과 레아의 다섯째 아들 잇사갈. 합환채를 위한 죄 없는 샅군. 그는 단순함을 호소합니다.

잇사갈의 말의 사본.

2 그가 그의 아들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잇사갈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3 나는 합환채의 샅으로 야곱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4 내 형 르우벤이 들에서 합환채를 가져오매 라헬이 그를 만나 그것을 취하였느니라.

5 르우벤이 울고 그의 음성으로 내 어머니 레아가 나왔느니라.

6 이 합환채는 물 골짜기 아래 하란 땅에서 나는 향기로운 사과였노라.

7 라헬이 이르되: 내가 그것을 주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내게 있어 자녀가 되리라.

8 주님께서 나를 멸시하셨으므로 내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아니하였노라.

9 이제 사과 두 개가 있노라. 레아가 라헬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취한 것으로 족하니 이것도 취하겠느냐?

10 라헬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 아들의 합환채에 대해서 오늘 밤은 당신이 야곱을 가질 것이라.

11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야곱은 내 것이라. 나는 그의 어려서 취한 아내라.

12 그러나 라헬이 이르되: 자랑하지도 말고 너 자신을 뽐내지도 말라. 그가 너보다 먼저 나를 정혼하고 나를 위하여 십사 년 동안 우리 아버지를 섬겼음이라.

13 땅에 교활함이 번성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사악함이 번성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은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리라.

14 너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간사하게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취하여졌느니라.

15 내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그날 밤에 나를 옮기고 야곱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였더니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환채를 위하여 내가 하룻밤 동안 야곱을 빌려줄 것이라.

17 야곱이 레아를 알고 레아가 잉태하여 나를 낳고 나는 값 때문에 잇사갈이라 불렸느니라.

18 그 때에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헬이 남편과 교제하기를 거절하고 절제를 택하였은즉 두 자녀를 낳으리로다.

19 그리고 내 어머니 레아가 그의 남편과 합하기 위해 합환채 두 개를 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여덟 아들을 낳았을 것이라. 이런 이유로 레아가 여섯을 낳고 라헬이 둘을 낳았으니 이는 합환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녀를 돌보셨음이니라.

20 이는 그 분이 라헬이 자녀를 위하여 야곱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정욕을 원하지 아니함을 아시기 때문이라.

21 이는 이튿날에도 그녀가 다시 야곱을 버렸음이라.

22 그러므로 주님께서 합환채로 말미암아 라헬의 말을 들으셨느니라.

23 그녀가 그것들을 원했으나 먹지 아니하고 그 때에 있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에게 들고 가서 주님의 집에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느니라.

24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내가 장성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여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위하여 농부가 되었으며 밭에서 그 계절에 따라 열매를 수확하였느니라.

25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내게 복을 주셨느니라.

26 나는 내 일에 분주하지도 아니하고 시기하지도 아니하고 이웃에 악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7 나는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전한 눈으로 행하였노라.

28 그러므로 내가 삼십오 세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는 노동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쇠하였고 여자와의 즐거움을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수고로 인해 잠이 나를 덮쳤느니라.

29 내가 모든 첫 열매를 제사장을 통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내 아버지는 나의 정직함을 항상 기뻐하셨느니라. 내 아버지에게도 그리하였노라.

30 그리고 주님은 내 손에서 그분의 은혜를 만 배나 더하셨느니라. 또한 나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의 순전함을 도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느니라.

31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에게 땅의 좋은 것을 주었노라.

32 이제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33 마음이 순전한 자는 금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웃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풍족한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며 다양한 의복을 즐겨 입지 아니하느니라.

34 그는 장수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느니라.

35 미혹의 영이 그를 해할 권세가 없나니 이는 그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아니함은 그의 마음을 부패함으로 더럽히지 아니함이라.

36 그의 생각에는 시기가 없고, 사람이 그의 영혼을 후회하게 할 악함도 없으며, 그의 마음에 만족을 모르는 욕심으로 인한 걱정도 없도다.

37 그가 순전한 영혼으로 행하고,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살피며, 세상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악을 받은 눈에서 피하는 것은, 그가 주님의 계명중 하나라도 패역함을 보지 아니하려함이라.

38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전함을 취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네 이웃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39 농사에 허리를 굽히며 수고하여 온갖 농사를 지으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려라.

40 주님께서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땅의 처음 익은 열매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41 땅의 기름진 것 외에는 다른 분깃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나니 그 열매는 수고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42 우리 조상 야곱이 땅과 처음 익은 열매의 축복을 내게 주셨음이라.

43 레위와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을 받았고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고 레위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유다에게는 그 나라를 주셨음이라.

44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순종하고 너희 아버지의 순전함 안에서 행하라.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군대를 멸하는 것은 갓에게 주어졌느니라.

2장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마지막 때에 너희 아들들이 순전함을 버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 집착할 것임을 알라.

2 정직함을 버리고 악에 끌려갈 것이며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벨리알에 달라 붙을 것이라.

3 그들이 농사를 떠나 자기의 악한 계교를 좇아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의 원수를 섬기리라.

4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이 명령을 주어 그들이 범죄하면 더욱 속히 주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이라.

5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일백이십육 세이며 아무 죄도 지을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6 나는 아내 외에는 아는 여자가 없노라. 나는 내 눈을 들어올려 음행한 적이 없노라.

7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그로 말미암아 미혹되기 때문이라.

8 나는 내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 탐내지 않았노라.

9 내 마음에 간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노라.

10 거짓말이 내 입술을 지나가지 않았노라.

11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내가 그의 고난에 나의 탄식을 더했노라.

12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빵을 나누었노라.

13 나는 경건을 행하고 평생에 진리를 지켰노라.

14 나는 주님을 사랑하였노라;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였노라.

15 내 자녀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벨리알의 모든 영이 너희를 찌하고 악인의 행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리라.

16 너희는 천지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므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행하고 모든 들짐승을 정복하라.

17 이 말을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를 헤브론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 조상들과 함께 굴에 장사하라 명하였습니다.

18 그리고 그는 좋은 연수에 발을 펴고 죽었습니다. 모든 팔다리가 건강하고 힘을 잃지 않은 채 그는 영원한 잠을 잤습니다.

The Testament of Zebulun

스불론의 유언

야곱과 레아의 여섯째 아들.

1장

야곱과 레아의 여섯째 아들 스불론. 발명가이자 박애주의자. 요셉에 대한 음모의 결과로 그가 배운 것.

요셉이 죽은 후 이 년이요, 그의 나이 백십사 년에 죽기 전에 스불론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한 말의 사본이라.

2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스불론 자손들아 너희 아버지의 말에 주의하라.

3 나 스불론은 내 부모에게 좋은 선물로 태어났느니라.

4 내가 태어날 때에 내 아버지가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뭇을 가졌을 때에 양 떼와 소 떼로 심히 번성하였느니라.

5 내가 생각을 제외하고는 평생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6 내가 요셉에게 범한 무지의 죄 외에는 내가 아무 죄악도 행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벌어진 일들을 내 아버지께 알리지 않기로 내 형제들과 맹세하였기 때문이라.

7 그러나 내가 요셉을 인하여 여러 날을 은밀히 통곡하였으니 이는 누구든지 은밀한 일을 전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였으므로 내가 내 형들을 두려워하였음이라.

8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내가 눈물로 그들에게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많이 간청하였느니라.

9 시므온과 갓이 요셉을 죽이려 하여 요셉이 눈물로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님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아버지 야곱의 뱃속을 긍휼히 여기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려고 네 손을 내게 대지 말라.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짓지 않았느니라.

10 나의 형님들이여, 내가 정말로 범죄하였다면, 나를 혼내고 혼을 내되 우리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네 손을 내게 대지 마소서.

11 그가 이 말을 하고 것처럼 통곡하니 내가 그의 비탄의 소리를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하며 내 간이 토하고 내 창자가 다 풀렸느니라.

12 내가 요셉과 함께 우니 마음이 울리고 관절이 떨리고 서지 못하였느니라.

13 요셉이 내가 자기와 함께 우는 것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치려 오는 것을 보고 간청하며 내 뒤로 도망하였느니라.

14 그 사이에 르우벤이 일어나 가로되: 오라 내 형제들아, 죽이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파다가 물을 얻지 못한 이 마른 구덩이 중 하나에 던지자.

15 이러므로 주님께서 그 속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금하셨으니 이는 요셉을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라.

16 그리고 그들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때까지 그렇게 하였느니라.

17 내 자녀들아 그의 값으로 내게는 몫이 없느니라.

18 시므온과 갓과 다른 우리 여섯 형제가 요셉의 값을 받고 자기와 그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신을 사고 이르되:

19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형제의 피 값임이라. 그러나 그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정녕 그것을 밭로 밟으리로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20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씨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신발이 벗겨지고, 형제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하리라.

21 요셉의 형들이 그가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주님께서 그들의 형제 요셉을 대적하여 신고 있던 신을 그들에게서 풀어 주셨느니라.

22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성문 밖에서 요셉의 신하들에게 풀렸으므로 그들이 바로 왕의 관습을 따라 요셉에게 절하였느니라.

23 그들이 그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침을 뱉음을 당하며 그 앞에 엎드려져 애굽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24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들었느니라.

25 그가 팔린 후에 내 형제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느니라.

26 그러나 내가 요셉을 불쌍히 여겨 먹지 아니하고 구덩이를 바라보았으니, 이는 유다가 시므온과 단과 갓이 달려가서 그를 죽이지않을까 두려워했음이라.

27 그러나 그들이 내가 먹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릴 때까지 나를 지키게 하였느니라.

28 르우벤이 와서 자신이 없는 동안 요셉이 팔렸다 함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여 가로되:

29 내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랴? 그리고 그는 돈을 가지고 상인들을 뒤쫓았지만 찾지 못하자 슬퍼하며 돌아왔느니라.

30 그러나 상인들은 넓은 길을 떠나 트로글로디 사람들 사이의 지름길로 행진하였느니라.

31 그러나 르우벤은 그 날에 근심하여 아무 것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32 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소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할 말을 찾았나이다.

33 염소 새끼를 잡아 요셉의 옷을 담그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보소서, 이것이 당신 아들의 옷이죠?

34 그들은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요셉을 팔 때 그의 겹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입혔기 때문이라.

35 시므온이 그 겹옷을 취하고 놓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살아 있고 그가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였음을 인하여 노하여 칼로 그것을 찢고자 함이었더라.

36 우리가 다 일어나 그에게 이르되: 만일 네가 옷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말하

기를 내가 홀로 이스라엘에게 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 하리라.

37 이에 그것을 그들에게 주매 그들이 단의 말대로 하였느니라.

2장

그는 인간의 동정과 동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촉구합니다.

이제 자녀들아 너희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너희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동정심을 가지되 사람에게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거라.

2 주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며 내 형제가 다 병들었을 때에 내가 병 없이 피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뜻을 아심이니라.

3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 마음에 긍휼을 품으라. 사람이 그 이웃에게 행함 같이 주님께서도 그에게 행하시리라.

4 내 형제들이 마음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형제들의 아들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어가고 있노라. 그러나 내 아들들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질병 없이 보존되었느니라.

5 내가 가나안 땅 바닷가에 있을 때에 내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고기를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질식할 때에도 나는 계속 다치지 않았느니라.

6 내가 먼저 배를 만들어 바다 위로 돛을 펼쳤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 안에서 나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셨음이라.

7 그리고 나는 그 뒤에 키를 놓고 그 가운데에 다른 곧은 나무 조각에 돛을 펼쳤느니라.

8 그리고 나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내 아버지의 집을 위해 고기를 잡으면서 물가를 따라 그곳으로 향해했느니라.

9 그리고 나는 동정심으로 내가 잡은 고기를 모든 낯선 사람과 나누었느니라.

10 만일 어떤 사람이 나그네나 병든 자나 연로한 자이거나 그 생선을 삶아 잘 먹이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애통하였느니라.

11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기를 잡을 때에 많은 고기로 나를 만족케 하셨느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는 주님께 여러 배를 받기 때문이다.

12 내가 오 년 동안 고기를 잡아 내가 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었고 내 아버지의 온 집에 배부르게 하였느니라.

13 여름에는 고기를 잡았고 겨울에는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느니라.

14 이제 내가 한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노라.

15 내가 한 겨울에 알몸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내 아버지 집에서 은밀히 옷을 훔쳐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주었노라.

16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17 그리고 만일 너희에게 필요한 자에게 줄 재물이 없거든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라.

18 내 손이 그 부족한 자에게 구제할 재물을 찾지 못한 줄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일곱 Furlongs(약 1.4km)를 그와 함께 울며 걸으며 내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였느니라.

19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도 자비로 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그리하면 주께서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리라.

20 이는 말세에 하나님이 긍휼을 땅에 보내사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마다 그 안에 거하심이라.

21 사람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주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22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요셉이 우리에게 악의를 품지 아니하였느니라.

23 내 자녀들아, 너희 자신에게 악의가 없게 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자기 형제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지 말거라.

24 이는 연합을 깨뜨리고 모든 족속을 분열시키며 마음을 괴롭게 하며 용모를 쇠약하게 함이니라.

25 그런즉 물을 살피고 함께 흐를 때 돌과 나무와 땅과 다른 것들을 쓸어 가는 줄을 알라.

26 그러나 그들이 많은 시내로 나뉘면 땅이 그들을 삼키고 사라져 버리리라.

27 너희도 만일 나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께서 머리 하나와 어깨 두 개와 손 두 개와 나머지 것들을 만드신 모든 것을 위해서 두 개의 머리로 나뉘지 말지니라.

28 내가 내 열조의 글을 읽을 때에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고 두 왕을 따르며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29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악을 구하여 많은 연약함과 환난을 당할 것이요.

30 이 일 후에 너희가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는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심이라.

31 또 그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악을 계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요 자기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하기 때문이니라.

32 그리고 이 일 후에 주께서 그 자신을 의의 빛으로 너희에게서 일어나시리니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오리라.

33 또 너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를 보리라.

34 또 너희 행위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노엽게 할 것이라.

35 그리고 너희는 완성의 때까지 그분에 의해서 쫓겨날 것이라.

36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며, 나의 끝이 이르렀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라.

37 이는 내가 그 분의 아들들 중에서 통치자 같이 너희들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이라; 많은 나의 족속들이 주님의 법과 그들의 조상 스불론의 명령을 지키는 만큼, 나는 나의 족속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38 그러나 주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영원한 불을 내려 대대에 멸하시리로다.

39 그러나 나는 이제 내 조상들처럼 나의 안식에 서두르노라.

40 그러나 너희는 평생에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41 그가 이 말을 하고 좋은 연수에 잠이 들었습니다.

42 그의 아들들은 그를 나무 관에 넣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그를 메고 헤브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습니다.

The Testament of Dan

단의 유언

야곱과 빌하의 일곱째 아들.

1장

야곱과 빌하의 일곱째 아들. 질투하는 사람. 그는 분노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 "그것이 특이한 환상을 준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노에 관한 주목할만한 주장이다.

단이 그의 나이 백이십오 년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들에게 한 말의 사본이라.

2 그가 그 가족을 불러 이르되 단 자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3 나는 내 마음에서 증명했는데 내 평생에 의롭게 행하는 진실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거짓과 노는 악한 것이니 이는 사람에게 모든 악을 가르치기 때문이라.

4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고백하노니 나는 참되고 선한 사람인 내 형제 요셉의 죽이기로 마음으로 결심하였노라.

5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므로 그가 팔린 것을 내가 기뻐하였노라.

6 시기와 허영의 영이 내게 이르기를 너도 그의 아들이라 하였느니라.

7 벨리알의 영들 중 하나가 나를 격동시켜 이르되 이 칼을 가지고 그 칼로 요셉을 죽이라. 그래서 그가 죽으면 네 아버지가 너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리라.

8 이것이 표범이 어린아이를 짓밟듯이 내가 요셉을 짓밟도록 설득했던 분노의 영이니라.

9 그러나 내 열조의 하나님은 그를 내 손에 넘기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는 내가 홀로 그를 찾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지파가 멸할 뻔 하였느니라.

10 그리고 내 자녀들아, 보라 내가 죽어가고 있으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거짓과 노하는 영을 멀리하고 진리와 오래 참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11 분노는 장님이요, 진실되게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느니라.

12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는 그들에게 원수처럼 행동하느니라. 형제일지라도 그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는 주님의 선지자에게도 불순종 하느니라. 그는 의로운 사람도 존중하지 않느니라. 그는 친구조차 인정하지 않느니라.

13 노하는 영이 속이는 그물로 그를 두르고 그의 눈을 가리고 거짓말로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의 독특한 환상을 그에게 보이느니라.

14 그리고 무엇으로 그의 눈을 에워싸느냐? 형제를 시기할 만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싸느니라.

15 내 자녀들아 성내는 것은 악한 것이니 이는 심지어 영혼까지 괴롭게 함이니라.

16 분노는 성난 자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의 영혼을 다스리며, 몸에 능력을 주어 모든 불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7 몸이 이 모든 일을 행하면 영혼이 그 행한 일을 옳게 여기나니 이는 바로 보지 못함이라.

18 그러므로 노하는 자는 용사일지라도 그의 분노 안에 삼중의 능력이 있으니, 하나는 그의 부하들의 도움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의 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릇되게 설득하고 이기는 것이요, 셋째는 그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악을 행하느니라.

19 노하는 사람이 비록 약할지라도 그에게는 본래의 것보다 두 배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노는 항상 불법을 행하는 자를 돕느니라.

20 이 영은 항상 사탄의 우편에 앉았으니 이는 잔학함과 거짓으로 그의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1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의 능력이 헛된 줄을 알라.

22 이는 먼저 말로 격노케 함이라. 행위로 그것이 노하는 자를 강하게 하고 큰 손실로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여 그의 영혼을 크게 격노로 휘젓는도다.

23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방하는 말을 하여도 노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거룩한 자로 찬양하여도 교만하지 말며, 기뻐함으로도 미워함으로도 요동하지 말라.

24 처음에는 그것은 듣기를 즐겁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분개의 원인을 잘 인식하도록 만드느니라. 그리고 격분하여, 그는 자신이 당연히 화가 났다고 생각하느니라.

25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떤 손실이나 파멸에 빠지더라도 괴로워하지 말라. 바로 이 영이 사람으로 썩어질 것을 사모하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괴로움을 통해 분노를 품게 하려 함이니라.

26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손실을 입더라도 화를 내지 말거라. 번뇌에서 거짓말로 진노가 일어나기 때문이라.

27 또 이중적인 해악은 거짓으로 인한 분노니, 그들은 마음을 어지럽히기 위해 서로 돕느니라. 영혼이 계속해서 불안할 때, 주님은 그곳을 떠나시고 벨리알이 그것을 다스리느니라.

2장

죄, 포로, 재앙 및 궁극적인 국가 회복에 대한 예언. 그들은 여전히 에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절 참조). 23절은 예언에 비추어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법을 지키라. 노에서 떠나고 거짓을 미워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벨리알이 너희를 떠나리라.

2 서로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거라. 그리하면 너희는 진노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하나님이 계시므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니 전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3 평생에 걸쳐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거라.

4 말세에 너희가 주님을 떠나 레위를 노엽게 하며 유다와 싸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는 주의 천사가 그들 두 지파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그들로 말미암아 서리라.

5 너희가 주님을 떠날 때에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며 이방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불법의 여자들을 따라 음행하며 모든 악과 함께 악의 영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리라.

6 내가 의인 에녹의 책에서 너희의 군주는 사탄이며 모든 악과 교만한 영이 공모하여 레위 자손

을 항상 꺾어서 주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것을 잊었음이니라.

7 내 아들들이 레위에게 가까이 나아가 범사에 그들과 함께 범죄하리니, 유다 자손은 탐욕스러워서 사자처럼 남의 재물을 약탈할 것이라.

8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애굽의 모든 재앙과 이방인의 모든 악행을 받으리라.

9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너희가 긍휼을 얻을 것이요. 그가 너희를 자기 성소로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리라.

10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중에서 주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일어나리니 그는 벨리알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

11 우리의 적들에게 영원한 복수를 행하여 그는 벨리알에게서 포로된 성도들의 영혼을 취하여 불순종하는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것이라.

12 성도들은 에덴에서 쉬고 의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리니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13 예루살렘이 다시는 황폐함을 견디지 못하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사람 가운데 거하시며]계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겸손과 가난한 심령 가운데 다스리실 것임이라. 그를 믿는 자는 진실로 사람들 가운데서 왕 노릇 하리라.

14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탄과 그의 영들을 조심하거라.

15 하나님과 및 너희를 위하여 중재하는 천사에게 가까이 하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시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서서 대적의 나라를 치시리라.

16 그러므로 원수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를 멸하려 하는도다.

17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에 대적의 나라가 멸망할 줄을 그가 알기 때문이라.

18 평강의 바로 그 천사가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하사 악행의 끝단에 떨어지지 않을 것임이니라.

19 이스라엘의 불법의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자기 뜻을 행하는 나라로 변하게 하시리니 이는 어떤 천사도 그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라.

20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각처와 이방인 가운데 있으리라.

21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스스로 삼가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노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오래 참으라.

22 또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 자녀에게도 나누어 주어 이방의 구주께서 너희를 영접하시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는 참되고 오래 참으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의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니라.

23 그러므로 모든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를 취하라, 그리하면 너희 족속이 영원히 구원을 받으리라.

24 그리고 나를 내 조상들 곁에 장사하라.

25 이 말을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좋은 연수에 잠들었습니다.

26 그의 아들들이 그를 장사하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까이 두었습니다.

27 그러나 단이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기업의 땅과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씨족에서 떠나리라 하였습니다.

The Testament of Naphtali

납달리의 유언

야곱과 빌하의 여덟째 아들.

1장

야곱과 빌하의 여덟째 아들 납달리. 달리는 사람. 생리학 강의.

납달리의 유언의 사본, 그가 그의 나이 백삼십 년에 죽을 때에 명한 것입니다.

2 일곱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의 아들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때는 건강상태가 좋을 때라, 그가 그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3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죽어가고 있노라.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4 그가 주께 영광을 돌리며 강하여지며 말하되 어제의 명절 이후에 자기가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5 이에 그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내 자녀들아 납달리 자손들아, 들으라 너희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6 나는 빌하에게서 났고, 라헬이 교묘히 처리하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빌하를 주었으므로 그녀가 잉태하여 라헬의 무릎 위에 앉혔으므로 그녀가 내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느니라.

7 라헬은 내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매우 사랑했느니라. 내가 아직 어렸을 때 그녀는 내게 입맞추며 말하되: 내 태로부터 너와 같은 너의 형제가 있기를 원하노라.

8 라헬의 기도와 같이 요셉도 모든 면에서 나와 같으니라.

9 내 어머니는 빌하이며,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의 형제 로데우스의 딸이요, 그녀는 라헬과 같은 날에 태어났느니라.

10 그리고 로테우스는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갈대아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하며, 고귀한 사람이었느니라.

11 포로로 잡혀가서 라반에게 팔렸으며 그리고 그의 여종 에우나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녀가 딸을 낳고 그가 사로잡혀 간 마을 이름을 따라 이름을 실바라 하였느니라.

12 다음에 그녀가 빌하를 낳아 이르되 내 딸이 새 것을 구하는 것이 빠르니 이는 낳은 즉시 젖 가슴을 잡고 급히 빨음이라.

13 나는 내 딸이 사슴과 같이 빨랐고 내 아버지 야곱이 나를 임명하여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였고 그가 사슴처럼 내게 복을 주셨느니라.

14 토기장이가 그 그릇의 분량을 알고 그에 따라 진흙을 가져옴과 같이 주께서도 영의 모양을 따라 몸을 지으시고 그 몸의 능력에 따라 영을 심으심이라.

15 이 사람은 머리카락의 삼분의 일만큼도 저 사람보다 모자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무게와 측량과 잣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16 토기장이가 각 그릇의 쓰임과 합함을 아는 것 같이 주께서도 우리 몸을 아시나니 그 몸이 어느 정도 선함이 지속되며 언제 악이 시작할 때인 줄 아시니라.

17 주께서 모르시는 생각과 사람의 기분은 없으심이니 이는 그가 각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음이니라.

18 사람의 힘과 같이 그의 일에도 그러하고, 그의 눈과 같이 잠자는 동안에도 그러하고, 그의 영혼과 같이 주의 법이나 벨리알의 법에 있는 그의 말에도 그러하니라.

19 빛과 어둠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나뉘는 것 같이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 사이에도 분열이 있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얼굴이나 마음에서 다른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20 하나님이 만물을 그 질서대로 선하게 하시되, 머리에 오감을, 그 목에 머리에 붙이시고, 어울림과 영광을 위하여 머리에 머리카락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명철을 위한 마음, 배설을 위하여 배, 소화를 위하여 위장, 숨숨을 위하여 기관지, 노를 위하여 간, 괴로움을 위하여 쓸개, 웃음을 위하여 비장, 명철을 위하여 신장, 힘을 위하여 허리 근육, 들숨을 위하여 폐, 힘을 위하여 허리, 등등.

21 그런즉 내 자녀들아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모든 일을 질서있게 하고, 냉소와 부적절한 시기에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

22 눈으로 듣게 하여도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빛의 일을 할 수 없느니라.

23 그러므로 너희는 탐심으로 너희 행위를 더럽히거나 헛된 말로 너희 영혼을 미혹하지 말라. 순결한 마음으로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벨리알의 뜻을 버리는 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

24 해와 달과 별이 그 순서를 바꾸지 않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행실의 무질서로 하나님의 법을 바꾸지 말라.

25 이방인들이 그릇 행하여 주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고 가축들과 돌과 속이는 영을 순종하였느니라.

26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리니, 내 자녀들아, 궁창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신 주를 알기에 이는 너희가 본성의 질서를 바꾼 소돔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7 이와 같이 파수꾼들도 그들의 본성의 질서를 바꾸었으니 곧 주님께서 홍수 때에 그들을 저주하셨으며, 그들의 책임으로 인하여 땅에 거민이 없고 열매가 없게 하셨느니라.

*파수꾼: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

28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함은, 내 자녀들아, 너희도 주를 떠나 이방의 모든 불법을 따라 행하고 소돔의 모든 악을 행할 것이라고 내가 예녹의 글에서 읽었음이니라.

29 주님께서 너희를 사로잡으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원수를 섬기겠고 주님께서 너희를 다 멸하시기까지 모든 고통과 환난 중에 굴복되어 질 것이니라.

30 그리고 너희가 줄어들고 적어진 후에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의 주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가 당신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 너희들을 너희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31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땅에 들어간 후에 다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경건치 아니하게 되리라.

32 주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시리니 주님의 긍휼이 임할 때까지라, 모든 먼 데에 있는 자

에게나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 의를 행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가 오시리라.

2장

그는 질서 있는 삶을 위해 간청합니다. 그들의 영원한 지혜로 주목할만한 것은 27-40절입니다.

내 생애 사십 년에 내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해와 달이 정지하는 환상을 보았음이라.

2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의 아버지 이삭이 우리에게 말하였느니라. 각각 자기의 힘에 따라 달려가서 붙잡으라. 그리고 그것들을 잡는 자에게 해와 달이 속할 것이라.

3 우리가 다 함께 달려가서 레위는 해를 잡았고 유다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달을 잡았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달려 올려졌느니라.

4 레위가 해와 같을 때에 한 청년이 종려나무 열두 가지를 그에게 주었고 유다는 달처럼 밝았고 그들의 발 아래에는 열두 광선이 있었느니라.

5 레위와 유다 두 사람이 달려가서 그들을 붙잡았느니라.

6 그리고 보라, 땅 위에 황소가 있는데, 두 개의 큰 뿔이 있고, 그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우리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느니라.

7 그러나 요셉이 와서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갔느니라.

8 또 내가 보매, 내가 거기 있었더니, 보라 거룩한 기록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앗수르 사람과 페대 사람과 바사 사람과 갈대아 사람과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사로잡아 차지 하리라 하였느니라.

9 또 칠 일 후에 내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암니아 해변에 서 있는 것을 보니 우리도 그와 함께 있더라.

10 그리고 보라, 선원도 선장도 없이 지나가던 배가 왔느니라. 그리고 배 위에는 야곱의 배라고 쓰여 있었느니라.

11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배를 타자.

12 그가 배를 탈 때에 거센 폭풍과 엄청난 바람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키를 잡고 있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떠났느니라.

13 그리고 우리는 폭풍우에 휩쓸려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배에 물이 가득하고 거센 파도에 부딪쳐 마침내 깨어지더라.

14 요셉이 작은 배를 타고 도망하매 우리는 모두 아홉 개의 널빤지에 앉았고 레위와 유다는 함께 있었더라.

15 그리고 우리는 모두 땅 끝까지 흩어졌느니라.

16 이에 레위가 굵은 베를 두르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니,

17 폭풍이 그치매 배가 평안히 육지에 이르렀더라.

18 그리고 보라, 우리 아버지가 오셨고,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하였느니라.

19 내가 이 두 가지 꿈을 내 아버지에게 말하였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많은 것을 견디어 낸 후에야 이러한 일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20 그 때에 내 아버지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요셉이 살아 있음을 하나님께 믿노니 이는 주님께서 그를 너희와 함께 계수하심을 내가 항상 보았음이니라.

21 그가 울며 이르되: 오 내 아들 요셉아, 나도 너를 보지 못하고 너도 나를 낳은 야곱을 보지 못하지만 네가 살아 있도다.

22 그러므로 그가 이 말로 나로 올게 하였으므로 나는 마음이 불타서 요셉이 팔렸다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 형들을 두려워하였느니라.

23 그리고 보라 내 자녀들아, 내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희에게 보여 주었느니라.

24 그런즉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그들이 레위와 유다와 연합하게 하라.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일어날 것이요. 야곱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25 하나님이 그들의 지파를 통하여 땅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거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며 이방인 중에서 의인을 모으시기 위함이라.

26 내 자녀들아,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 사람과 천사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고 들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천사들도 너희에게 붙을 것이라.

27 아이를 잘 훈련시킨 사람이 친절하게 기억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선한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 앞에 선한 기억이 있느니라.

28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사나 사람이나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욕을 받으리니 마귀가 저를 자기의 전용 도구로 삼으리니 모든 들짐승이 저를 다스리게 되고 주님께서 그를 미워하실 것이라.

29 법의 계명은 이중적이니 반드시 슬기롭게 행하여야 함이니라.

30 남자가 아내를 안을 때가 있고 기도를 삼갈 때가 있음이라.

31 그러므로 두 가지 계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것들이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매우 큰 죄를 가져오느니라.

32 다른 계명들도 그러하니라.

33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그분의 계명들의 질서와 모든 말씀의 법도를 이해하면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34 또 이런 많은 말로 그들에게 명하고 그 뼈를 헤브론으로 옮기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고 권하였습니다.

35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취하여 얼굴을 가리고 죽었습니다.

36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 납달리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The Testament of Gad

갓의 유언

야곱과 실바의 아홉째 아들.

1장

야곱과 실바의 아홉째 아들 갓. 양치기 그리고 강한 사람이지만 마음은 살인자입니다. 25절은 미움에 대한 주목할만한 정의입니다.

갓의 유언 사본, 갓이 그의 나이 백이십오 년에 자기 아들들에게 무엇을 말하여 이르되:

2 내 자녀들아 들으라, 나는 야곱이 낳은 아홉째 아들로써 양 떼를 지키는 데 용감하였노라.

3 그러므로 나는 밤에 양 떼를 지켰느니라. 사자나 이리나 어떤 들짐승이 양떼를 치러 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쫓고 그것을 따라잡으며 내 손으로 그 발을 붙잡고 돌이 던져질 거리만큼 그들을 던져 죽였느니라.

4 내 형제 요셉이 우리와 함께 삼십 일 이상 양 떼를 먹이다가 어려서 더위 때문에 병들었느니라.

5 그가 헤브론에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 아버지께서 그를 크게 사랑하시므로 그를 가까이 늑게 하셨느니라.

6 요셉이 우리 아버지에게 고하기를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이 양 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르우벤과 유다의 판단에 대항하여 먹었다고 일렀느니라.

7 이는 내가 꿈의 입에서 어린 양을 끌어 내어 그 꿈을 죽인 것을 그가 보았음이라. 그러나 양이 살지 못할 것을 슬퍼하면서 양을 잡아 먹었느니라.

8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요셉이 팔리는 날까지 그에게 노하였노라.

9 또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 내가 귀로 요셉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눈으로 보기도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유다가 없는데 양 떼를 먹는다고 우리 면전에서 책망하였기 때문

이라.

10 그가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무슨 말이든지 아버지가 그를 믿었노라.

11 나의 자녀들아, 내가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자주 죽이고자 하였음을 이제 고백하노라.

12 더욱이 나는 그의 꿈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느니라. 소가 들의 풀을 앗는 것 같이 나는 그를 산 자의 땅에서 몰아 내기를 원하였노라.

13 유다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밀히 팔았느니라.

14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그를 우리 손에서 건져 내사 우리로 이스라엘에서 큰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15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모든 법을 행하고, 미움의 영으로 결길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모든 행실 안에서 악하기 때문이다.

16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을 가증히 여기고, 사람이 주님의 법을 행할지라도 칭찬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며 의를 기뻐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느니라.

17 그는 진리를 멸시하며 변영하는 자를 시기하며 험담을 기뻐하며 거만함을 사랑하니 이는 미움이 그의 영혼을 혼미케 함이니라. 내가 그때에 요셉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리하니라.

18 그러므로 나의 (미움의) 자녀들아 조심하라, 그것이 심지어 주님에게까지 불법을 행함이니라.

19 이는 이웃 사랑에 관한 그의 계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이라.

20 형제가 실족하면 즉시 모든 사람에게 이를 선포하기를 기뻐하니,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 급함이니라.

21 만일 종이면 그를 선동하여 그 주인을 치게 하고 모든 환난으로 그를 해할 궁리를 하여 할 수만 있으면 죽일지니라.

22 미움은 형통한 자에게도 시기와 함께 일하나니, 그 형통함을 듣거나 보는 한 그것은 항상 쇠잔하느니라.

23 사랑이 죽은 자를 살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다시 불러 일으키는 것 같이 미움은 산 자를 죽이고 사소한 죄를 지은 자도 살지 못하게 하느니라.

24 미움의 영은 사탄과 함께 역사하여 서두르는 영을 통하여 범사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느니라. 그러나 사랑의 영은 사람의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법과 함께 역사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미움은 악하니라. 이는 항상 거짓과 짝을 이루며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것이니라. 작은 것을 크게 만들며 빛을 흑암이 되게 하며 단 것을 쓴 것이라 부르며 비방을 가르치며 노를 사르며 전쟁과 강포와 모든 탐심을 선동하느니라. 그것은 악과 악마 같은 독으로 마음을 채우느니라.

26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내가 경험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로 마귀에게 속한 미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라.

27 의는 미움을 내어 쫓고 겸손은 시기를 멸하느니라.

28 의롭고 겸손한 자는 불의한 일을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여 남에게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책망을 받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의 성향을 보심이니라.

29 그가 거룩한 사람을 비방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미움을 이기느니라.

30 그가 주님에게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여 생각으로라도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31 내가 요셉에 대하여 회개한 후에 마침내 이것들을 배웠느니라.

32 경건을 따라 참된 회개는 무지를 폐하며 어두움을 몰아내며 눈을 밝게 하며 지식을 영혼에 주며 마음을 구원에 이르게 함이니라.

33 또 사람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들은 회개를 통해서 아느니라.

34 하나님이 내게 간 병을 주셨으니 내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나를 도우지 아니하였다면 거의 내 영혼은 떠나갔을 것이라.

35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느니라 .

36 그러므로 내 간이 요셉을 무자비하게 대적하였으며 내가 요셉에게 노하여 열한 달 동안 나와 내 간도 무자비하게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았느니라.

2장

갓은 그의 자녀들에게 증오가 어떻게 자신을 그토록 많은 곤경에 빠지게 했는지 보여 주면서 증오에 대해 권면합니다. 8-11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에서 미움을 버리고 행동으로, 말로, 그리고 영혼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

2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는 요셉에게 화평하게 말하였노라. 내가 나갔을 때 미움의 영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영혼을 충동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느니라.

3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거라. 만일 사람이 범죄하거든 그에게 화평롭게 말하고 마음에 간사함을 품지 말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를 용서하거라.

4 만일 그가 그것을 부인할지라도 걱정을 품지 말라. 그가 취한 독을 잡아 맹세함으로 너희가 두배의 죄를 지음이라.

5 다른 사람이 소송을 할 때에 네 비밀을 듣지 못하게 하라. 그가 미워하여 네 원수가 되어 너를 대적하여 큰 죄를 범할까 두려우니라. 그가 종종 교활하게 말하거나 사악한 의도로 바쁘도다.

6 그가 부인하고 책망을 받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책망하지 말라.

7 부인하는 자가 회개하여 다시는 네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그가 너를 또한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너희들과 화목할 수 있느니라.

8 만일 그가 뻔뻔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9 사람이 너보다 더 잘되거든 근심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가 온전한 번영을 누리게 하라.

10 그것은 너희들에게 적합하도다.

11 또 그가 더 높임을 받으면 그를 시기하지 말라. 모든 육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12 주님의 심판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쉬고 평안하리라.

13 사람이 악한 수단으로 부자가 되더라도 내 아버지의 형 에서와 같이 질투하지 말거라. 그러나 주님의 끝을 기다리거라.

14 그가 악한 수단으로 얻은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서 빼앗으면,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하시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벌을 받으리라.

15 가난한 자가 시기가 없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사람보다 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헛된 자의 수고가 없음이니라.

16 그런즉 너희 영혼에서 질투를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17 그런즉 너희도 너희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여 유다와 레위를 공경하게 하라.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시리라.

18 너희의 자녀들이 마침내 그분을 떠나 주님 앞에서 악과 곤고와 부패 가운데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19 잠시 쉬신 후에 다시 말씀하시되: 내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나를 내 조상들 가까이 장사하라.

20 그가 발을 멈추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21 오 년 후에 그들이 그를 헤브론으로 메고 올라가 그 열조와 함께 뉘었습니다.

The Testament of Asher

아셀의 유언

야곱과 실바의 열째 아들.

1장

야곱과 실바의 열째 아들 아셀. 이중인격에 대한 설명. 지킬 앤 하이드의 첫 번째 이야기.

아셀의 유서 사본, 그가 그의 나이 백이십오 년에 그의 아들들에게 한 말.

2 그가 여전히 건강할 동안에 그들에게 이르되: 아셀 자손들아, 너희 아버지의 말을 들을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든 것을 보여주리라.

3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성향과 두 종류의 행위와 두 형태의 행위와 두 가지 쟁점을 주셨느니라.

4 그러므로 만물이 둘이 되어 하나가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느니라.

5 선과 악에는 두 가지 길이 있으며, 우리의 가슴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 이들을 분별하느니라.

6 그러므로 만일 영혼이 선한 성향을 기뻐하면 그 모든 행위는 의로움 안에 있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곧바로 회개하느니라.

7 생각이 의에 맞춰져 있으므로 악을 버리고 즉시 악을 타도하며 죄를 뿌리 뽑느니라.

8 만일 영혼이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지면 그 모든 행위가 사악하여 선을 쫓아내고 악을 고수하고 벨리알에게 지배를 받으니 선을 행할지라도 악으로 굽게 하느니라.

9 그가 선을 행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는 그 마음의 보화에 악령이 가득함을 보고 그 행위의 결과를 억지로 악으로 만드느니라.

10 그러므로 사람이 악을 위하여 말로 선을 도울 수 있으나 행위의 결과는 해악에 이르느니라.

11 악으로 자기 목적을 섬기는 자에게 공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가 있도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희석하지만 전체는 악이니라.

12 또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자기를 위하여 악 중에서 죽는 것을 더 좋아함이니라.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을 희석하지만 전체는 악한 일이니라.

13 비록 그가 사랑이 있을지라도 명예를 위하여 악을 숨기는 자는 악인이며 그 행위의 끝에는 악이 따르느니라.

14 어떤 이는 도적질하며 불의를 행하며 약탈하며 속이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이도 역시 양면을 희석시키나 전체는 악하니라.

15 그 이웃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거스려 거짓 맹세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니, 그들은 법을 명하신 주님을 멸시하며 화나게 하되 반면 가난한 자를 돌보느니라.

16 그는 영혼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고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소수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이것 역시 이중적인 측면을 희석시키나 전체는 악하니라.

17 또 어떤 이는 간음과 음행을 행하며 고기를 자제하고, 금식할 때에 악을 행하여, 그 재물로 많은 사람을 압도하며, 그의 과도한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것도 이중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체가 악하니라.

18 그런 사람은 토끼다. 발굽이 갈라진 - 깨끗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부정하도다.

19 하나님이 계명의 판에 이와 같이 선언하셨느니라.

20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들과 같이 선과 악의 두 얼굴을 쓰지 말라. 오직 선함만 고수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며 사람들이 그것을 원함이니라.

21 오직 악에서 떠나 너희 착한 행실로 악한 성향을 멸하라. 두 얼굴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정욕을 섬기나니 그래서 그들로 벨리알와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느니라.

22 선한 사람들은 얼굴이 하나인 사람들이라도, 죄에 대하여 양면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니라.

23 많은 사람이 악인을 죽이는 일에 두 가지 일 곧 선과 악을 행하나니, 전체적으로 그는 선하니라, 왜냐하면 그가 악한 것을 뽑고 멸하였기 때문이라.

24 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면서 불의한 자와 금식하면서 간음하는 자를 미워하니, 이것도 양면이 있으니, 전체적으로는 선하노라,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본을 쫓았고 진정한 선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25 자기 몸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 그들과 함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지 아니 하려는 것, 이것 역시 양면적이지만 전체는 선하니라.

26 그런 사람들은 수사슴이나 암사슴과 같으니 이는 들짐승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부정한 것 같으나 완전히 깨끗함이라. 이는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으로 미워하시고 금하신 것을 멀리하여 선에서 악을 물리치기 때문이니라.

27 내 자녀들아 만물에 들어 함께 있어 서로 대적하고 하나가 저편에 감추어진 줄을 너희가 보라. 재물 안에 탐욕이, 연회 안에 술 취함이, 웃음 안에 근심이, 결혼 안에 방탕이 숨어 있느니라.

28 죽음은 생명을 계승하고, 영광은 불명예를, 밤은 낮을, 어둠은 빛을 계승하고, 만물은 낮 아래에 있고, 정의로운 것은 삶 아래에 있고, 정의롭지 않은 것들 죽음 아래에 있고, 그런 까닭에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노라.

29 또한 진리는 거짓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 아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진리가 빛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30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주의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선한 것에 순전한 얼굴로 모든 나의 힘을 다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계명을 쫓았느니라.

31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순전한 얼굴로 진리를 좇으라.

32 두 얼굴을 가진 자는 이중적인 죄에 해당하며 이는 그들이 모두 다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여 미혹의 영의 본을 따라 사람을 대적하기 때문이니라.

33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는 주의 법을 지키며 악을 선처럼 경청하지 말고, 그러나 참으로 선한 것을 바라보고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 안에서 대화하고 안식하거라.

34 사람의 말년은 주님의 사자와 사탄의 사자를 만날 때에 의로움과 불의함을 나타내느니라.

35 영혼이 근심하여 떠날 때에는 정욕과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느니라.

36 그러나 그가 기쁨으로 평화로우면 그는 평화의 천사를 만나 영생으로 인도되느니라.

37 내 자녀들아, 주님의 천사들에게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한 소돔과 같이 되지 말라.

38 너희가 범죄하여 너희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을 내가 아노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소가 파괴되며 너희가 땅 사방으로 흩어지리라.

39 그리고 너희는 물처럼 사라지는 흩어짐 가운데에서 헛된 것이 되리라.

40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땅에 오실 때라, 사람으로 그 자신이 오시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물 속에서 용의 머리를 꺾으시리라.

41 그 분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을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말씀하시리라.

42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도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주께 불순종치 아니하게 하라.

43 너희가 정녕 순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경건치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청종치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청종하여 불의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것을 내가 아느니라.

44 그러므로 너희는 내 형제 갓과 단처럼 흩어질 것이요, 너희의 땅과 족속과 언어를 알지 못하리라.

45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 당신의 온화한 자비를 통해 믿음 안에서 너희들을 모으실 것이라.

46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나를 헤브론에 장사하라.

47 그리고 그는 잠들어 좋은 연수에 죽었습니다.

48 그의 아들들이 그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를 헤브론으로 메고 올라가 그의 열조와 함께 장사하였습니다.

The Testament of Joseph

요셉의 유언

야곱과 라헬의 열한째 아들.

1장

야곱과 라헬의 열한째 아들 요셉, 아름답고 사랑받은 요셉. 애굽의 유흥자에 대한 그의 투쟁.

요셉의 유언의 사본.

2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과 형제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3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녀들아,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자 요셉에게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라.

4 내가 살 때에 시기와 사망을 보았으나 그릇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였노라.

5 내 형제들은 나를 미워하였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6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도다.

7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다시 끌어 올리셨도다.

8 내가 종으로 팔렸으나 만유의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9 내가 사로잡혔고 그의 강한 손이 나를 도우셨도다.

10 내가 주릴 때에 주께서 친히 나를 기르셨도다.

11 내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도다.

12 내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도다.

13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도다.

14 갇혀 있을 때에 나를 풀어 주셨도다.

15 중상모략을 당할 때에 내 일을 변호하셨도다.

16 애굽 사람들이 비방할 때에 나를 건지셨도다.

17 내 동료 종들이 시기할 때에 나를 높이셨도다.

18 바로의 천부장이 자기 집을 내게 맡겼노라.

19 또 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와 싸웠고, 그 여자는 자기와 범죄하기를 권하였노라, 그러나 내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타는 불꽃에서 건져내셨느니라.

20 나는 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조롱을 받았지만 주님은 내가 간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느니라.

21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흑암이나 결박이나 환난이나 궁핍 중에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22 하나님은 사람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시며 인자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며 땅에 난 자 같이 약하고 겁먹지 아니하시느니라.

23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에 보호를 베푸시며, 비록 그가 영혼의 성향을 시험하려고 잠시 떠날 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시니라.

24 그분은 열 가지 시험에 대해 내가 이길 것을 보여주셨고 내가 모든 시험을 견디어 났느니라. 인내는 큰 매력이고 인내는 많은 좋은 것을 낳기 때문이니라.

25 애굽 여자가 얼마나 자주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느냐!

26 그녀가 얼마나 자주 나를 형벌에 넘겨준 다음 다시 나를 불러 위협하고 내가 그녀와 함께 있

기를 싫어했을 때 그녀가 나에게 말하되:

27 만약 네가 네 자신을 내게 주면, 너는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며, 우리의 집주인과 같이 될 것이라.

28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방에 들어가 울며 주께 기도하였느니라.

29 그 칠 년 동안에 내가 금식하되 애굽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와 같이 보였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는 자는 얼굴의 아름다움을 받음이라.

30 내 주인이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나는 사흘 동안 내 양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병자들에게 주었느니라.

31 내가 일찍이 주님을 찾았고 뫼피스의 애굽 여자때문에 울었으니 이는 그녀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심지어 그녀는 밤에 나를 방문하는 척하며 내게 왔느니라.

32 그리고 그녀는 남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여겼느니라.

33 그리고 그녀는 한동안 나를 아들처럼 안아 주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나를 음행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느니라.

34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는 근심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그녀가 나갔을 때, 나는 그녀의 간계와 속임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그녀를 위해 슬퍼하였느니라.

35 그리고 나는 어쩌면 그녀가 그녀의 악한 정욕에서 돌이킬 수 있을 지 몰라, 가장 높으신 분의 말씀을 그녀에게 선포했느니라.

36 그러므로 그녀는 종종 성자라는 말로 나에게 아첨하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뺏에 걸리게 하려 하여, 그녀의 말로 교활하게 남편 앞에서 나의 순결을 찬양하였느니라.

37 이는 그녀가 공개적으로 나를 순결하다고 칭찬하고 은밀히 나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가 당신의 순결에 관하여 확신함이라. 사람이 우리에게 관하여 그에게 말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라.

38 내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려 주님께서 나를 그녀의 속임수에서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느니라.

39 그리고 그녀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할 때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는 척하면서 다시 내게 왔느니라.

40 그녀가 내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내가 우상을 버리기를 원한다면 나와 동침하라.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을 권하여 그로 우상에서 떠나게 하리니 우리가 너의 주님의 법에 따라 행하리라.

41 내가 그녀에게 이르되: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부정하게 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기뻐하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마음이 청결하고 입술이 더러워지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을 기뻐하심이라.

42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평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녀의 악한 욕망을 성취하기를 갈망하였느니라.

43 그리고 나는 금식과 기도에 더욱 힘썼으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그녀에게서 건지시기 위함이라.

44 또 다른 때에 그녀가 다시 내게 말하되: 네가 간음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남편을 독으로 죽이리니 그리고 너를 내 남편으로 삼으리라.

45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듣고 내 옷을 찢고 그녀에게 이르되:

46 여자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 네가 멸망할까 하노라, 내가 당신의 계약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줄을 참으로 알지이다.

47 그러므로 그녀는 두려워서 내가 이 계약을 선언하지 않기를 구하였느니라.

48 그리고 그녀는 선물로 나를 달래면서 떠났고 인생의 모든 즐길거리를 나에게 보냈느니라.

49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나에게 마법이 섞인 음식을 보냈느니라.

50 그것을 가져온 내시가 올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무시무시한 사람이 칼을 그릇과 함께 내게 주는 것을 보고 그녀의 계약으로 나를 꾀는 줄을 알았노라.

51 그가 나간 후에 내가 울며 그 음식이나 그 밖의 어떤 그녀의 음식도 맛보지 아니하였느니라.

52 그런 다음 하루가 지나고 그녀가 내게 와서 음식을 관찰하고 나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3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죽음의 마법을 음식에 가득 채웠음이라, 당신이 어떻게 말하였느냐: 나는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리라: 했느니라.

54 그런즉 이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당신의 사악함을 그 천사를 통하여 내게 보이신 줄을 아노라. 만일 당신이 보고 어찌면 회개할지도 몰라 내가 그것으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보관하였노라.

55 그러나 하나님께 순결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악이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여 내가 그것을 취하여 네 앞에서 먹으리라.

56 내가 이같이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자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먹었느니라.

57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보고 내 발 앞에 엎드려 올랐느니라. 나는 그녀를 일으켜 훈계했노라.

58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이 죄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느니라.

59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어떻게 나를 올라미 씹을 것인가를 살피고, 아프지 않은데도 깊이 탄식하며 낙심하였느니라.

60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보고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의 안색이 왜 앓중은가?

61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영혼의 탄식이 나를 압박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아프지 않은 그녀를 위로했느니라.

62 이에 남편이 아직 없을 때에 기회를 잡고 급히 내게 달려와서 내게 이르되: 네가 나와 동침하지 아니하면 내가 목을 매어 죽거나, 절벽에 내 몸을 던지우리라.

63 그리고 내가 벨리알의 영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64 비참한 여자여, 왜 당신은 근심하고 불안하며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느냐?

65 당신이 자살하면 당신 남편의 첩이자 당신의 경쟁자인 아스테호가 당신의 자녀들을 쳐서 당신의 자녀들을 땅에서 없애버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66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말하되: 보라,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나를 충족시키노라. 내 삶과 내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라. 나는 내 욕망도 또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노라.

67 그러나 그녀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내 주님 때문이지 그녀 때문이 아닌 것을 몰랐노라.

68 남자가 사악한 욕망의 정욕 앞에 넘어지면 그 정욕의 노예가 되고, 그녀와 같이 그 정욕과 관련하여 좋은 것을 듣게 되면 그는 악한 욕망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니라.

69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그녀가 나를 떠난 것은 제육 시쯤이었더라. 나는 온 낮과 온 밤동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새벽이 되자 나는 일어나 잠시 동안 울며 그녀에게서 해방되기를 기도했느니라.

70 마침내 그녀는 내 옷을 붙잡고 강제로 그녀와 교제하도록 나를 끌고 갔느니라.

71 그러므로 나는 그녀가 미친듯이 내 옷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두고 벌거벗은 채로 달아났느니라.

72 그리고 그녀는 그 옷을 굳게 붙잡고 나를 거짓 고발했느니라.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왔을 때 그는 나를 그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느니라. 그리고 다음날 그는 나를 채찍질하고 바로의 감옥에 보냈느니라.

73 내가 갇혔을 때에 애굽 여자가 근심에 눌려 나에게 와서, 어떻게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들었으며, 어두운 곳에서 찬송으로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기뻐하여, 애굽의 여자의 음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74 그리고 그녀가 자주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동의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결박에서 해방시키고 너를 어둠에서 해방시킬 것이라.

75 그리고 나는 생각에도 그녀에게 기울어지지 않았느니라.

76 왕궁에서 사치와 방종을 겸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굴에서 금식과 순결을 겸비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77 사람이 순결하게 살면서 영광도 사모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것이 그에게 합당한 줄 아시고 이것도 내게 주시느니라.

78 그녀가 병들었는데도 얼마나 자주, 얼마 동안 눈에 띄지 않게 내게 내려와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음성을 들었느니라.

79 그리고 나는 그녀의 신음 소리를 듣고 잠잠했느니라.

80 내가 그녀의 집에 있을 때 그녀는 내가 그녀와 동침하게 하려고 그녀의 팔과 가슴과 다리를 자주 드러내었노라.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나를 속이기 위해 화려했다.

81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계략에서 나를 보호하셨느니라.

2장

요셉은 폼피안 여성의 사악한 독창성으로 인해 많은 음모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예언적 비유는 73-74절을 보라.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인내와 금식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너희가 보라.

2 이와 같이 너희도 인내와 기도로 순결과 순수를 좇고, 마음을 겸손하게 금식하면, 주님께서 순결을 사랑하시므로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리라.

3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이 시기나 종살이나 비방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그의 순결로 인하여 그를 악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또한 그를 나처럼 높이시리라.

4 이는 사람이 행동에나 말에나 생각에나 범사에 교만함이라.

5 내 형들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았으나 나는 내 마음에서 나를 높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으니 이는 (인생의)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6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치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을 공경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팔릴 때에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내가 야곱의 아들이요 위대하고 힘센 용사임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7 내 자녀들아 너희도 너희 목전에서 행하는 너희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너희 형제를 공경하라.

8 이는 주의 법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사랑을 받을 것임이니라.

9 그리고 내가 이스마엘 사람들과 함께 Indocolpita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나에게 물어 가로되:

10 네가 종이나? 그리고 나는 내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집에서 태어난 종이라고 말했느니라.

11 그 중에 만이가 내게 이르되: 너는 종이 아니라, 너의 외모가 말하고 있느니라.

12 그러나 나는 그들의 노예라고 말했노라.

13 우리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나를 두고 다투니 그 중에 누가 나를 사서 데려갈까 하였느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장사하는 상인과 함께 애굽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여겨졌으니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라.

15 주님께서 상인의 눈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자기 집을 내게 맡기셨느니라.

16 하나님이 나의 수단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금과 은과 집의 종들을 많이 늘어나게 하셨느니라.

17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석 달 댕새를 지냈느니라.

18 그 무렵에 펜테프리스의 아내인 멤피아 여자가 환관들에게 나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므로 큰 위엄을 가지고 병거를 타고 내려왔느니라.

19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그 상인이 젊은 히브리인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가 확실히 가나안 땅에서 도둑맞았다고 말하였느니라.

20 그런즉 이제 그에게 의를 행하고 청년을 당신의 집으로 데려오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니 이는 하늘로부터 은혜가 그의 위에 있음이니라.

21 그리고 펜테프리스는 그녀의 말에 설득되어 상인에게 오라고 명하고 그에게 말하되:

22 네가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훔쳐 종으로 판다는 말을 내가 들은 바가 무엇이냐?

23 상인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 주여 구하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을 알지 못 하나이다.

24 펜테프리스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히브리 종이 어디에서 왔느냐?

25 그가 이르되: 이스마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를 내게 맡겼나이다.

26 그러나 그는 그를 믿지 않고 그에게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하였느니라.

27 그리고 그가 이 진술을 고집했을 때, 펜테프리스가 말하되: 젊은이를 데려오라.

28 내가 이끌려 들어갔을 때 나는 펜테프리스에게 절했으니, 바로의 신하 중 세 번째이기 때문 이라.

29 그리고 그가 나를 떼어놓고 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종이나 자유인이냐?

30 그리고 내가 말하되: 노예입니다.

31 그가 이르되: 누구의 소유이냐?

32 내가 말하되: 이스마엘인의 소유입니다.

33 그가 이르되: 네가 어떻게 그들의 종이 되었느냐?

34 내가 말하되: 그들이 나를 가나안 땅에서 샀나이다.

35 그가 나에게 이르되: 네가 진실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곧 그는 나에게 옷을 벗기 고 구타하라고 명령하였느니라.

36 뽀피아 여자가 집이 가까우므로 내가 매질을 당할 때에 창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37 당신의 판단은 부당하나이다. 당신은 도둑맞은 자유인을 범죄자인 양 벌하고 있나이다.

38 내가 구타를 당하여도 내 말을 바꾸지 아니하자 그가 나를 옥에 가두라 명하여 이르되: 그 아이의 주인이 올 때까지니라.

39 그 여자가 그 남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포로가 된 태생이 좋은 젊은이를 가두나이까? 오히려 놓아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40 그녀는 죄의 정욕으로 나를 보기를 원하였으나 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느니라.

41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애굽 사람들은 증거를 보기 전에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관습이 아니니라.

42 그러므로 그는 상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으니: 그러나, 그 소년은 투옥되어야 하느니라.

43 이십사 일 후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왔느니라. 내 아버지 야곱이 나를 위하여 많이 슬퍼하고 있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44 그들이 와서 내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종이라 하였느냐? 그리고 보라, 너는 가나안 땅에서 용사의 아들이고 네 아버지는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으면서 여전히 너를 위하여 애통하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았노라.

45 내가 이 말을 듣고 내 창자가 녹았고 내 마음이 녹았으니 내가 크게 울고 싶었으나 내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 자제하였노라.

46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종이라.

47 그런즉 그들이 나를 팔려고 의논하여 내가 그들의 손에 있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8 그들이 내 아버지를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와서 그들에게 비통한 보복을 행할까 두려워함이라.

49 이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강하신 분임을 그들이 들었음이라.

50 이에 상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펜테프리스의 심판에서 풀어 주소서.

51 그들이 와서 내게 청하여 가로되: 너는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이라 하라.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52 뎬피아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되: 그 청년을 사세요. 내가 듣기로 그들이 그를 팔고 있다고 하나이다.

53 그녀는 곧 내시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나를 팔라고 청하였느니라.

54 그러나 내시가 그들의 값으로 나를 사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시험하고 돌아와서, 여주인에게 알리기를, 그들이 종 값을 많이 달라고 하였나이다.

55 또 다른 내시를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두 므나를 요구할지라도 금을 아끼지 말고 주라. 그 아이만 사서 나에게 데려오라.

56 그래서 내시는 가서 금 팔십을 그들에게 주고 나를 샀느니라. 그러나 애굽 여자에게 그는 백을 주었다고 말했느니라.

57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내시가 수치를 당할까 하여 잠잠하였노라.

58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가 보라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참아 내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59 그런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숨기라.

60 하나님은 사랑을 기뻐하는 마음의 뜻을 따라 형제의 연합을 기뻐하시니라.

61 내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내가 그들의 돈을 그들에게 돌려준 줄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위로하였느니라.

62 내 아버지 야콥이 죽은 후에 내가 그들을 더욱 풍성히 사랑하였고 그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더욱 풍성히 행하였느니라.

63 그리고 나는 그들이 가장 작은 일에 고난을 받지 않게 하였으며,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들에게 주었느니라.

64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이었고, 나의 자녀들은 그들의 종들이었느니라. 그들의 삶은 나의 삶이었고 그들의 모든 고통은 나의 고통이었고 그들의 모든 질병은 나의 허약함이었느니라.

65 내 땅은 그들의 땅이요, 그들의 결심은 나의 결심이었노라.

66 또 내가 세상의 영광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그들 가운데서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같이 되었노라.

67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도 주의 계명대로 행하면 그가 거기서 너희를 높이시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영원무궁토록 축복하시리라.

68 또 누구든지 너희에게 악을 행하려 하거든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악에서 주님께 구속을 받으리라.

69 보라, 내가 검손과 오래 참음으로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70 그리고 그녀와 함께 나에게 금 백 달란트를 주셨고, 주님께서는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셨느니라.

71 그리고 그 분은 나에게 또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주셨느니라. 그 분은 내가 늙기까지 힘과 아름다움을 보존하셨으니 이는 내가 모든 면에서 야곱과 같았기 때문이라.

72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본 환상도 들어라.

73 먹이는 수사슴 열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 아홉이 먼저 온 지면에 흠어졌고 그 세 마리도 그와 같이 흠어졌더라.

74 또 내가 보니 유다에게서 처녀가 났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며, 그녀에게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났고 그의 왼편에는 사자 같은 것이 있었느니라. 모든 짐승이 그를 치며 달려들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고 멸하고 밭로 밟았더라.

75 그로 말미암아 천사들과 사람들과 온 땅이 기뻐하였더라.

76 그리고 이러한 일이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리라.

77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 레위와 유다를 공경하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모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 가운데서 너희에게로 오실 것임이라.

78 그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있는 내 왕국은 여름이 지나면 사라지는 파수꾼의 해먹처럼 끝날 것이라.

79 내가 죽은 후에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한을 풀어 주시고 너희 열조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인도하실 줄을 내가 아노라.

80 그러나 너희는 내 뼈를 떼고 가야 하리라. 내 뼈가 그리로 옮겨질 때에 주님께서 빛 가운데 너희와 함께 계시고 벨리알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둠 가운데 있으리라.

81 너희는 너희 어머니 야스낫을 히포드룸으로 떼고 올라가고 너희 어머니 라헬 가까이에 장사하라.

82 이 말을 하고 발을 펴고 좋은 연수에 죽었습니다.

83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통곡하고 온 애굽이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84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헤브론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백십 년이었습니다.

The Testament of Benjamin

베냐민의 유언

야곱과 라헬의 열두째 아들.

1장

야곱과 라헬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가족의 막내, 철학자이자 자선가로 변모.

베냐민이 일백이십오 세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명하여 준 말의 사본이라

2 또 그들에게 입맞추며 이르되: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낳은 것 같이 야곱에게도 내가 그러하였느니라.

3 그리고 내 어머니 라헬이 나를 낳다가 죽고 나서 젖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녀의 여종 빌하에게 젖을 먹었느니라.

4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열두 해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느니라. 그녀가 십이 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그녀가 잉태하여 나를 낳았느니라.

5 내 아버지는 라헬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녀가 두 아들을 낳는 것을 보기를 기도하였느니라.

6 그러므로 내가 베냐민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곧 낮의 아들이라.

7 내가 애굽으로 가서 요셉에게 이르매 내 형이 나를 알아보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팔 때에 그들이 내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하였느냐?

8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네 겹옷에 피를 묻혀 보내며 이르되: 이것이 당신 아들의 옷인지 아소서.

9 그가 내게 이르되: 아우야, 그들이 내 겹옷을 벗기고 나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이 내게 피를 주며 채찍질하고 뛰게 하였느니라.

10 또 나를 막대기로 때린 자 중 하나는 사자가 그를 만나 죽었느니라.

11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두려워하였느니라.

12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도 천지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선하고 거룩한 사람 요셉의 본을 따르라.

13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선하게 하라. 자기 마음을 바르게 씻는 자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기 때문이라.

14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벨리알의 영들이 당신에게 온갖 악으로 당신을 괴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형제 요셉을 지배하지 못한 것 같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

15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느니라.

16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호함을 받고 벨리알의 영이 능히 당하지 못함이라.

17 그는 사람의 꾀나 짐승에 좌우되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웃에 대해 그가 가진 사랑을 통해 주님이 그를 도우심이라.

18 요셉도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악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음이라.

19 야곱이 이같이 외쳐 가로되: 착한 아들아, 네가 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겼도다.

20 그가 그를 안고 두 시간 동안 입맞추며 이르되:

21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구주에 관한 하늘의 예언이 네게 이루어지리니, 곧 흠 없는 자가 불법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죄 없는 자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언약의 피로 죽으리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벨리알과 그의 부하들을 멸하시리라.

22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가 선한 사람의 결말을 보느냐?

23 그러므로 좋은 마음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도 영광의 면류관을 쓰리라.

24 선한 사람은 눈이 어둡지 않고 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자비를 베푸느니라.

25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락을 꾸밈을지라도 그는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며 그분은 의인을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시느니라.

26 누구든지 영광을 받으면 시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부유하면 질투하지 않느니라. 누구든지 용감하면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며, 덕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라.

27 그리고 그가 선한 영의 은혜가 있는 자를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느니라.

28 그런즉 너희도 좋은 마음을 품으면 두 악인이 너희와 화목할 것이요, 방탕한 자는 너희를 공경하여 선으로 돌이키리라;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그들의 과도한 욕망을 그칠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탐한 물건을 주기까지 할 것이라.

29 너희가 선을 행하면 더러운 귀신도 너희를 피하고 짐승들도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

30 선한 일을 경외하고 마음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도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31 누구든지 거룩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는 회개하리라. 이는 거룩한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잠잠함이라.

32 만일 누구든지 의인을 배반하면 의인은 기도하나니 그가 잠시 비천하여지나 오래지 않아 내 형제 요셉과 같이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나느니라.

33 선한 사람의 마음은 벨리알 영의 미혹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평강의 천사가 그의 영혼을 인도함이니라.

34 그는 썩어질 것을 열렬히 바라보지 아니하며 탐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아니하느니라.

35 그는 쾌락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며 사치품에 탐내지 아니하며 교만함으로 실수하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그의 분깃이심이라.

36 선한 성향은 영광이나 사람에게 욕을 받지 아니하고 기만이나 거짓말이나 다툼이나 비방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혼에 빛을 비추사, 그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뻐함이라.

37 선한 마음에는 축복과 저주, 험담과 존귀, 근심과 기쁨, 잠잠함과 혼란, 위선과 진실, 궁핍함과 부함의 두 혀가 없나니;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패하지 않고 순수한 한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느니라.

38 그것은 이중으로 보지도 않고 이중으로 듣지도 않느니라. 이는 그가 행하거나 말하거나 보는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라.

39 또 그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사람과 하나님에게 정직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노라.

40 이와 같이 벨리알의 행적은 이중적이에요, 그들 안에 순전함이 없느니라.

41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벨리알의 악의를 피하라. 이는 그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칼을 주기 때문이라.

42 그리고 칼은 일곱 악의 어머니이라. 먼저 마음이 벨리알을 통해 잉태하고 먼저 유혈 사태가 있느니라; 두 번째로 파멸; 셋째, 환난; 넷째, 도피; 다섯째, 결핍; 여섯째, 공포; 일곱째, 파괴.

43 그러므로 가인도 하나님께 일곱 번 형벌을 받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백 년마다 한 가지 재앙을 그에게 내리셨음이라.

44 그가 이백 세에 괴로움을 받기 시작하여 구백 세 되던 해에 멸망하였느니라.

45 그의 아우 아벨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악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라멕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을 받았느니라.

46 가인과 같이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같은 심판을 받으리라.

2장

3절에는 검소함에 대한 놀라운 예가 들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는 악행에서 떠나고 시기와 형제 미워함에서 피하고 선과 사랑을 따르라.

2 사랑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음행으로 여자를 지켜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기 때문이니라.

3 해가 오물과 진창에 비취므로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것 같이 도리어 그것들을 마르게 하고 악한 냄새를 내쫓음 같이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도 비록 땅의 더러움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느니라.

4 또 내가 의인 에녹의 말에 너희 중에도 악행이 있다고 믿노니 곧 너희가 소돔의 음행과 함께 음행하여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멸망하고 여자들과의 음란한 행위를 새롭게 하리라; 주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즉시 그것을 빼앗으실 것임이라.

5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의 분깃이 되리니 나중의 성전이 처음 것보다 더 영화로우리라.

6 또 열두 지파와 모든 이방인이 거기로 모일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독생하신 예언자의 방문으로 그분의 구원을 보내실 것이라.

7 그분이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리니 거기서 주님께서 진노하심을 받으시고 그가 나무 위에 들리시리라.

8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불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니라.

9 그리고 그분은 음부에서 올라오시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

10 그리고 나는 그분이 땅에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하늘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느니라.

11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그의 형상과 그의 용모를 보고자 하였더니, 내 아버지 야곱의 기도로 내가 낮에 깨어 있을 때에 그를 보았으니, 그의 전체 모습이 정확히 내가 꿈에 본 것과 같았느니라.

1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내가 죽노니,

13 그런즉 너희는 각각 그 이웃에게 진실하며 주님의 법과 그의 계명을 지키라.

14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기업으로 대신하여 남겨 두노라.

15 그런즉 너희도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러하였기 때문이니라.

16 그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르기를: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모든 이방에게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17 그 때에 너희가 에녹과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뻐하며 오른편에 오르는 것을 보리라.

18 그 때에 우리도 우리 지파 위에 각기 일어나 겸손한 사람의 형체로 땅에 나타나신 하늘의 왕에게 경배하리로다.

19 땅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함께 기뻐하리라.

20 그 때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리니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21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하여 먼저 심판하시리니 이는 그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22 그 때에 그가 땅에 나타나실 때에 그를 믿지 아니한 모든 이방인을 심판하시리라.

23 또 그가 이방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되, 저희 형제를 미혹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된 미디안 사람을 통하여 에서를 책망하신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분깃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만일 너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행하면 너희가 다시 나와 함께 평안히 거하고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모이리라.

25 또 나는 너희의 노략질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굶주린 이리라 불리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일꾼이라 불리리라.

26 말일에 유다와 레위 지파 중에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일어나 그 입에서 그 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새로운 지식으로 이방을 깨우치게 하시리라.

27 그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방인의 회당과 그 치리자들 가운데에 있되 모든 사람의 입에 음악 노래와 같으리로다.

28 그가 그의 일과 그의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되리라.

29 또 그들을 통하여 내가 내 아버지 야곱처럼 왕래하며, 이르기를: 그가 네 지파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리라.

30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발을 켜셨습니다.

31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잠을 자며 죽었습니다.

32 그의 아들들이 그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헤브론에 장사하였습니다.

33 그가 산 날이 일백이십오 년이었습니다.